금주의 법구-〈아함경〉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8월 12일)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조계종 원로회의는 9월 2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제37대 총무원장에 당선인 진우 스님을 인준했다. 인준 직후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의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고불문을 봉독하고 있는 진우 스님.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확정

조계종 원로회의, 9월 2일 만장일치 인준

진우 스님, 조계사서 고불 의식
기자회견 열고 당선 소감 발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원로회의 인준을 통해 선거법상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차기 총무원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진우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 직후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전에 삼배로 고불하고 기자들과 만나 당선소감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며 차기총무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제37대 총무원장 임기는 9월 28일부터 4년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대원)는 9월 2일 제70차 원로회의를 열고 제37대 총무원장에 당선인 진우 스님을 인준했다. 회의는 재적의원 18명 중 17명 참석으로 성원된 가운데, 총무원장 인준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진우 스님은 원로회의 직후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데 이어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고불의식을 진행했다. 부처님전에 삼배한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은 높고 넓은 조계사 법당과 같이 많은 것을 담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이지만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언제나 편하게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 모든 노력들이 불자는 물론 우리 사회에 함께 회향하는 당연한 역할임을 되새겨 실천해 가겠다"고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당선소감을 발표했다. 스님은 단일후보 추대에 대한 감사와 막중한 책임감을 전하면서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중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통과 교구, 포교 3대 종책기조를 모든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님은 "종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교구본사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고 지혜로운 포교를 통해 사회의 유익함이 더욱 증장된다면 불교가 나아가는 길은 더없이 크고 넓어질 것"이라며 "알고 보면 모두가 소통의 대상이자 교구활성화의 주인공,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풀어내고자 하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총무원장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종책 및 공약에 대한 계획을 밝힌 스님은 "한 가지도 쉬운 일은 없겠지만 공동체의 일심을 바탕으로 수승한 가르침을 따라 올곧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부대중의 지혜와 공감이 세상과 함께하는 원력으로 나아간다면 불교중흥의 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확정된 진우 스님이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국불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한국불교 위기로 손꼽히는 출가자 감소 문제와 관련, "모든 종단과 종도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 화두가 출가자 감소 문제"라고 심각성을 재차 지적한 스님은 "지엽적인 임시방편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종단 안팎의 여러 시스템과 제도적 여건들을 재정립해 점검하고 포교를 통한 불자수 증가, 재정적 토대 마련, 출가시스템 개선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구체적인 포교방안을 수립해 현대인들을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불교홍포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불교중흥의 개념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혔다. 스님은 "불교중흥은 추상적이고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용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바탕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불교로 거듭나야 하며 그 해답이 바로 한국불교 전통인 참선과 명상, 팔만사천법문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무원장 인준이 확정된 직후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취임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호산 스님과 진화 스님이 선임됐으며, 수행단에는 원명 스님, 대변인에는 성화 스님, 사무국장에는 원묵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취임법회준비단(단장 호산 · 지현), 인수인계단(단장 진화, 부단장 성화), 종책개발단(단장 만당 · 삼조)으로 구성됐다.

원행 스님, 프란치스코 교황 만난다



원행 스님



프란치스코 교황

9월 19일, 종지협 순례 중
바티칸서…종교 화합 대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바티칸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종교 화합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 이하 종지협)는 해외 성지순례단을 꾸려 9월 13~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바티칸 등을 순례할 계획이다.

순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 천주교 대주교,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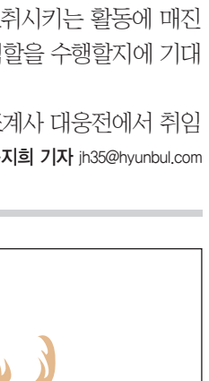
특히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순례 기간 중인 9월 19일 바티칸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교황과의 만남에서 종교 간 상생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세계 평화와 종교 화합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바티칸 교황청 대사 등을 통해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주교는 지난 4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호남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티칸 등의 순례를 제안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 당시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인 김영주 목사 등 국내 종교 지도자 12명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 임은호 기자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정각회, 9월 1일 총회서 선출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선출됐다.

국회정각회는 9월 1일 본회의 후 제4간담회장에서 후반기 국회정각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고 후반기 회장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전반기 국회정각회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예회장으로 후반기 활동을 이어간다.

주호영 정각회장은 5선 의원으로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의원이다. 2004년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정각회 회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 후반기 정각회장을 역임한 후 21대 국회에서는 명예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스님들과 인연이 깊었고 불심 또한 돈독해 굵직굵직한 불교계 현안에 두루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종교적 인연을 넘어 전통문화 정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 불교계간 소통 창구로서 남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장을 맡아 불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전통문화 보존 정책 등을 포함한 불교공약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주호영 의원이 국회에서 종단과 원활한 소통을 이끄는 것은 물론,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활동을 돕고 신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에 매진해 온 만큼 후반기 국회정각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기대감이 모인다.

한편, 국회 정각회는 9월 6일 오전 7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현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문체부, 선학원 총림선원 부지 매각 "위법"

해당토지 실사 결과 '전통사찰보존지' 확인

"명백한 절차상하자"드러나
전통사찰법 위반 행위 관련
"법에 따른 법적대응 검토"

재단법인 선학원이 주장한
"문체부 장관 허가받았다"
허위주장으로 확인돼 파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 부지를 일방적으로 진주시에 매각한 사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선학원이 해당부지를 문체부 장관 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전통사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선학원은 해당 부지에 대해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고 문체부 허가도 받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문체부의 공식입장에 따라 모두 거짓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선학원에 대한 법적처벌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최근 진주시와 경상남도에 '경남 진주시 총림선원 전통사찰보존지 해당여부 관련 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조사 결과 진주시 망경동 산 18-1번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는 검토의견을 고지했다.

총림선원이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공문에서 진주시와 선학원간 토지 양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판단한 결과, "선학원이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것은 전통사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전통사찰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사찰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망경동 산18-1번지는 진주시가 추진 중인 망경공원 조성사업의 공용수용 예정부지로, 등기상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을 배제한 채 진주시에 일방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절차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등의 하자가 드러나면서, 현재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선학원측이 "해당 부지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 여부가 절차상 하자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체부는 7월 25일 진주 총림선원 부지인 망경동 산 18-1번지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총림선원과 소속 종단인 재단법인 선학원 간 전통사찰보존지 여부에 이견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문체부와 경남도청, 진주시 관계자들이 현장조사에 공동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 해당부지는 사찰과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임야)로, 사찰로 통하는 문이 산책로를통해 해당 토지와 이어지는 등 총림선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로 확인됐다. 이에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돼 있는 토지 혹은 이와 연결된 부속 토지, 참배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사찰보다 높이 위치하고 있어 그 활용에 따라 사찰의 풍치 보존에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됐다.

특히 문체부는 "종단 명의의 토지도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존구역 지정과 보존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봤다. 전통사찰보존지 여부 판단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관계보다 실질적인 점유 관계를 봐야하며, 전통사찰법 제9조는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종단 소유 토지도 해당된다는 결론이다.

해당 부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확인됨에 따라,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진행된 진주시와 선학원 간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절차상 하자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문체부가 '선학원의 전통사찰법 제9조를 위반해 전통사찰보존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와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물리적 충돌시 목숨 걸고 지키겠다"

태고종, 8월 30일 선암사수호대책회의서 결의

원로의원 등 중진 70여 명 참석
비상연락 구축 · 경찰 협조 등
수호기금 마련 불사 봉행도 확정



태고총림 선암사 수호대책회의가 8월 30일 경내 적묵당에서 원로의원, 총무원, 종회의원, 선관위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수호대책회의에 모인 대중들은 철저한 소송준비와 함께 기타상황 발생시 종단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태고종이 종단 차원에서 개최한 이날 회의는 7월 7일 고등법원 본안 소송과 7월 20일 전통차체험관 파기환송심에서 선암사가 승소한 것과 관련하여 조계종 측이 다시 대법에 상고한데 대응하는 자리였다.

수호대책회의에서는 조계종 측 일부가 "물리적 행사"를 언급한 것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대책회의서는 △문도별 비상연락망 확충 △경찰서, 시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결의대회 개최 및 종단 행사시 결의문 낭독 △수호기금 마련위한 대웅전 개금불사 봉행과 각 사찰 권선 등의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등 후속 재판에도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수호대책회의 참가 스님들은 "태고법손들은 선암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결의를 표명키도 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다짐했던 수호결의는 변함이 없다. 선암사 수호를 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확정된 내용을 정리해 오늘부터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코로나 시국에도 선암사에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 선암사 소임자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암사가 단 한번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끝까지 지켜 후대에도 태고종 선암사로 남기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 선암사 원로의장 남파 스님은 "1960년대부터 여러 번 조계종 스님들이 선암사에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모두 함께 수호하자는 마음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십시일반 대웅전 개금불사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13명 전원 서류 통과

10월 13일 예정된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선거를 앞두고 전국비구니회가 내부 선거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입후보자 13명 전원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는 9월 2일 제 2차 입후보자 자격심사회의를 열고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8월 22~24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접수에는 교학 · 수행, 행정 분야에 각각 2명, 포교, 복지, 사회 · 문화 분야에 각각 3명이 접수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관례적으로 비구니 종회의원 10석에 대해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5개 분야에서 각 2명의 종회의원을 뽑는 선출 방식에 따라 교학 · 수행 입후보자 진상 스님과 철우 스님, 행정 분야 입후보자 법해 스님과 설해 스님은 무투표로 후보당선이 확정됐다. 3명씩 입후보한 포교, 복지, 사회 · 문화 분야 후보에 대해서는 9월 15일 오후 1시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열리는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 취임

9월 2일 조계사 대웅전서 취임법회 봉행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어서
"민생 안정 · 문화 강국 최선" 당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이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취임했다. 대통령실 불자회는 이전 정부까지 청와대 불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진복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수장들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대통령실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은 부처님 전에 헌화한데 이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마치 부처님 말씀처럼 노력을 통한 공덕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 불자회장은 "대불회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공덕의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불교계 현안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급격한 변화의 여정에서 국민들은 든든한 의지처인 정부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 불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히 국가와 민족과 함께하며 호국과 전통문화 정수를 지켜온 불교 가르침을 국정에 반영해 민생안정과 세계 문화강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각계 축사도 이어졌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여러 신행단체 중에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 내 단체인만큼 대한민국의 안정과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 나라가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불교공약을 주관했고 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정각회장 소임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대통령실 불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전통문화 보존와 국민 화합을 위한 여러 불교공약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홍수 대참사' 파키스탄에 2억원

원행 스님, 9월 1일 대사에 전달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2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2억 원을 전달하고 대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고 있는 파키스탄 국민들을 위로했다.

나빌 무니르 주한대사는 이 자리에서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사에 의하면 국토의 1/3이 물에 잠긴 이번 홍수로 1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재민 수는 3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아직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많은 주택과 다리가 부서졌으며 파괴된 도로도 3500km에 달한다.

나빌 무니르 주한대사는 "이번 대홍수는 몬순우기에 기후온난화 영향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이상 기후 현상"이라며 "파키스탄은 탄수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0.1%가 채 되지 않는 국가임에도,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불자들의 자비로운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출신 마라난타 스님은 1700년 전 한국에 불교를 전해준 은인"이라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화답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30부산월드엑스포유치기원 2022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2022 팔관회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2022. 9. 17(토)
수원지 둘레길 약2.5Km
12:00~15:00(시간 내 자율 완주)

참가신청
접수처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신청 : 12:00시 부터 14:00시 마감

어울림한마당 15:00
경품추첨
- 스타일러, 의류건조기, 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축하공연
- 인기가수와 함께하는 축하공연

신 유 남승민 윤 성

그 외 다수 출연

문의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주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 2022 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취업 걱정없는 동국대’ 역대급 취업박람회

9월 1~7일, 대기업 등 309곳 참가
단일대학 취업박람회로 최대 규모
자승 스님 발원 건학위 역점사업
“정례화 통해 학생 중심 교육 제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가 9월 1~7일 캠퍼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취업박람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개막식 모습.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에서 삼성전자부터 유수의 공기업, 불교언론, 사찰까지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동국대는 9월 1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2022 Energize Dongguk JOB & CAREER Update Festival’(이하 취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박람회는 중앙도서관과 캠퍼스 일원에서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기아, 테슬라코리아 등 국내외 대기업부터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항공공사 등 공기업까지 309곳의 업체가 참여한다. 불교계에서도 BBS불교방송, 봉은사가 참가해 불교 인재 유치에 나선다. 이는 단일 대학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로는 최대 규모다.

동국대가 역대급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이하 건학위) 출범에 있다. 출범 당시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발원했고, 이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졌다.

실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통해 전액장학 프로그램인 ‘동국건학장학’과 지역 사찰이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신설됐으며, 학교 대표 장학 프로그램으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취업박람회는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대면 취업박람회 개최해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개막식 치사를 통해 “이번 취업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취업준비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바란다”며 “동국대 역시 과거 선각자들의 설립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세계 속 명문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축사에서 “지난해 4월 불교중흥과 동국발전을 목표로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했다. 건학위원회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어 불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토양을 다져왔다”며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의 첫 사업인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이 1대 1로 상담할 수 있는 ‘채용상담관’ △취업 전반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취업상담 부스’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상담’ △1대 1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이 진행된다.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과 퍼스널컬러 진단검사, 면접에 알맞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 면접 스타일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뤄진다.

동국대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람회 행사 기간을 2학기 개강에 맞춰 개최하며 단과대학별 명사 강연, 단과대학별 체육대회, 선후배 간담회, 연꽃제도 함께 열어 단순한 박람회가 아닌 축제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등록금·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의 발원에 따라 여러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박람회의 정례화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암사 소유권 분쟁, 대화·소통 노력”

조계종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 대진 스님

8월 27일 천은사서 기자간담회
정통성 수호 위해 끝까지 최선
“물리적 행위 등 충돌 없을 것”



순천 선암사를 두고 수년간 이어진 조계종과 태고종간 소유권 분쟁이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 대진 스님이 “선암사 분규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태고종 선암사 측과 대화·소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태고종 선암사가 대화·타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종단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불교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만큼, 조계종 선암사가 물리적 행위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 대진 스님은 8월 27일 구례 천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암사 소유권 분쟁에 관한 공식입장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이날 선암사 소유권 분쟁의 핵심소송의 경과를 설명한데 이어, 지난 7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진 스님은 “사법부의 판단은 한국불교 정통성을 저해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판결일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해 온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계종 선암사는 대법원 상고에 이어, 판결문에 나타난 법리오인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럼에도 대진 스님은 선암사 분쟁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법적 소송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화합, 타협을 우선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태고종 선암사 역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규해소가 선암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례=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공공장소 內 종교, 부정 보단 공유”

불교사회연구소 8월 29일
‘세계 공공 성지’ 학술대회
양정연 교수 “종교 기회 제공”



“염주가 장식품일 수 있고 사찰의 일부 공간이 마음편한 산책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정연 한림대 교수〈사진〉는 불교사회연구소가 8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세계 공공성지(公共聖地) 운영 현황과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야마나카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가 설명한 ‘가벼운 종교’ 개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국 대륙과 대만의 공공성지 현황과 종교 갈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한 양 교수는 사례 중 하나로 대만 타이페이 칠호공원에 있는 관음상 철거 논란을 들었다. 관음상 건립은 시정부의 허락을 받았지만 공원화 작업이 계획돼 있던 곳에 세워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철거와 유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종교성 영역이 아니라 예술문화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유 가치였다.

양 교수는 “예술문화에는 공동체 생활과 가치가 내포돼 있다”면서 “개인 신앙 표현이 금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종교계와 일반 시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들의 거듭된 공론의 장을 통해 교차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생각 범위에 갇혀 현실의 문제를 볼 때 우리와 공존하는 타자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배제돼 버리는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양 교수는 종교를 떠나 일상화 된 염주와 산책로를 예로 들며 “공공공간에서 논의되는 불교는 우리와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맥락으로 수용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환경연대 “이젠 ‘생태 순환사회’로”

8월 31일, 탈성장 전환사회 등
새로운 20년 활동 계획 발표



올해로 출범 21주년을 맞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지속 가능한 ‘생태 순환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는 8월 3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20년을 향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사진〉

이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생태 순환사회’ 정착을 강조하며 △탈성장 전환사회운동 △녹색불교운동 조직확대 △녹색지도력 발굴 양성 등 세가지 활동 방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성장시대는 위로 성공하는 삶을 지향했지만 성숙의 시대에는 옆으로 성공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부연하며 “돌봄과 환대, 협력, 상호부조, 공동체성 등 관계성이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생태 순환사회 운동 정착을 위해 조직 확장에 나선다. 먼저 2040년까지 1080개 사찰에서 녹색사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부도 8개로 확대, 지역조직 확대를 통한 사회 변화도 일으켜 낸다. 녹색지도력 발굴을 통한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스님과 재가자, 청소년, 활동가, 연구가 등 500여 명의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기후와 생태위기를 극복, 사회적으로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정길 위원장은 “우리가 가진 땅과 자원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의 입장까지 반영한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화쟁위원회, ‘평화로 가는 길, 화쟁’ 발간

불교대학 교과과정 활용 가능
화쟁 이해·갈등 해결 등 담겨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가 불자용 화쟁안내서 〈평화로 가는 길, 화쟁〉을 발간했다.

화쟁위원들이 사례를 모으고 직접 집필한 〈평화로 가는 길, 화쟁〉은 불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평화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대학(전문교육과정) 교재로 한 학기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총 3부 16장으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원효 스님의 화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갈등에 따른 화쟁의 기본원리를 7장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2부는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결에 필요한 입장을 4장으로 나눠 설명한다. △3부는 갈등조정의 구체적 방법을 소개하고 갈등조정자 즉 화쟁법사로서의 역할을 안내한다.

갈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생기며, 어떻게 진화해서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일상의 다양한 갈등 사례를 풀어내는 실습을 통해 화쟁사상을 내면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dongguk UNIVERSITY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9위
학과(전공)의 장벽을 넘는 융합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2022.09.15.(목) 10:00 ~ 09.17.(토) 17:00
동국대학교 특성화 분야
불교&문화예술
불교 및 불교융합
문학, 연극, 영화영상
Safety&Security
재난방지, 식품안전
치안, 범죄, 정보보호
바이오&메디
의생명과학, 한의학, 약학 및 BT
신약,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D.N.A+α
Big Data, Network(IoT, Cloud), A.I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기술 분야

올 여름 힘겨운 쪽방촌, 풍성한 한가위 기원

9월 1일 떡과 과일 등 자비나눔

코로나 상황에 배식 대신 선물
한가위 온정 느끼는 물품 담아
스님들 직접 나누며 덕담 건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월 1일 쪽방도우미봉사회원들이 소분한 떡과 과일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영등포쪽방촌은 서울역과 남대문, 대문, 돈의동 등과 함께 서울시내 5대 쪽방 밀집지역으로 쪽방촌 중 가장 거주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600여 주민이 사는 이곳에는 70% 가량이 기초 수급자 등 어려운 소외계층이다.

9월 1일 영등포역 철도길 옆 쪽방촌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이날은 불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쪽방도우미봉사회(봉사회장 김윤석)가 제30회 추석맞이 자비나눔을 진행한 날이었다.

"추석 맞아서 떡과 과일 등을 받으려고요." 줄 가운데서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던 이들이 말했다. 물가 상승 등 경제난으로 세밑 온정까지 식어가는 상황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장이었다.

길게 늘어선 주민들을 위해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미리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자비나눔에는 하동 상선암 보성 스님과 청각장애인불자 모임 자비두손회 회장 일원 스님이 함께 했다. 직접 스님들로부터 덕담과 함께 물품을 건네받은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보성 스님은 "어디가나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아직도 굶주린 이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원 스님도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스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김윤석 경감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앞장서고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과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물품을 건네받은 김 OO씨는 "보통 갈 곳이 없어 명절이 되어도 인근주민들끼리 보낸다. 떡과 과일 등을 보내주셔서 그래도 주민들끼리라도 나눠먹으며 명절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윤석 봉사회장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한가위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오늘 전달된 물품이 약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김윤석 봉사회장이 2001년 박부득 봉사팀장과 함께 조계사 붓다맘봉사회를 비롯한 불자 봉사자들을 모아 영등포 쪽방촌을 돕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보통 목요일이면 국수를 마련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점심공양을 올린다.

김윤석 봉사회장은 상암소년촌 고아원에서부터 자비나눔을 시작해 이날까지 30년간 나눔을 이끌어 왔다. 김 봉사회장은 "앞으로도 힘을 다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쪽방도우미봉사회는 앞으로 온정을 전하는 일에 더욱 발 벗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쪽방도우미봉사회 무료급식소에 대한 철거 강제이행금이 3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쪽방도우미봉사회의 활동 터전인 영등포동 618-584의 무료급식소는 가건물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2017년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다. 십시일반 노력봉사로 쪽방촌 소외계층을 돕는 이들에게 사실상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美뉴욕, 템플스테이·사찰음식에 빠지다

문화사업단, 8월 25~29일 '한국 전통불교와의 만남'

현지 관광업계·대학생 대상
뉴욕 원각사서 템플스테이
링컨센터서 한국불교 체험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제5회 한국전통불교문화의 만남' 행사에서 한국불교만의 발우공양을 현지인들이 체험하고 있다.

미국의 심장부 뉴욕이 한국불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매료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뉴욕 일원에서 '제5회 한국전통불교문화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후 첫 대규모 해외 홍보행사여서 의미를 더했다.

8월 25일에는 뉴욕 원각사에서 워커힐, 엔조이 트레블 등 현지 대표 여행·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일형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 전통 건축으로 불사 중인 원각사에서 발우공양, 참선 체험 등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이후 많은 업체와 학교에서 단체 여행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방문 계획을 서두르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8월 28일에는 쿠퍼유니온, 콜럼비아대, 예일대, 하버드대, 뉴욕주립대 등 동부 지역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가 뉴욕 원각사에서 진행됐다.

미국 대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실제 뉴욕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는 학생들의 불교수행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에 지광 스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동남아시아 불교의 수행방법과 한국불교의 화두선을 비교해 이해를 높였다.

8월 27일에서 28일까지 뉴욕 링컨센터 아트리움에서 열린 메인 행사에서는 한국불교 사진전, 템플스테이 홍보·체험 활동, 여름 사찰음식 시식 프로그램,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발우공양 워크숍 등 한국 전통불교문화 이벤트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마감됐을 정도로 한국불교문화 체험에 대한 현지 인기도 높았다.

미 동부지회 사찰(원각사·불광선원·보리사·원적사) 신도들과 함께한 체험활동은 지화연꽃만들기, 염주 만들기, 전통부채 채색체험, 반야심경 인경 등으로 구성돼 현지인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사찰음식 붐을 일으킨 명장 정관 스님은 두부장 채소 겉절이를 직접 시연하고, 발우공양 워크숍을 통해 자연과 환경에 대한 불교적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웠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찰음식 전문가 지견 스님은 계절 채소를 이용한 오이채소말이, 가지구이 등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한 사찰음식 레시피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하지권 불교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 7곳,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 50여 점이 전시돼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전시된 사진들은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동부지부로 기증돼 현지 한국불교 홍보와 포교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신성민 기자

대학전법센터 발원 600일 기념법회 눈길



대불련총동문회와 동불 등은 8월 2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대학전법센터 건립 발원 600일 기념법회를 열었다.

8월 20일 동국대 정각원서 봉행

2020년 12월 발원한 대학전법센터 건립을 위한 법회가 열렸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변대용)와 사단법인 대불, 동불 등은 8월 2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대학전법센터 건립 발원 600일 모심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불교동아리 동불 동문들과 대불련 선후배 50여 명이 모여 센터 건립을 서원했다.

사기순 동불 동문회장은 "후배불자들을 위한 전법센터 건립을 발원한지 600일"이라며 "각계의 도움으로 센터 건립이 한발 한발 이뤄지고 있다. 대학전법센터는 청년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선불장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제34회 포교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9월 30일까지 포교원 포교팀 접수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을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과 공로상, 원력상 후보자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추천분야는 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 노인 등 계층포교를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군, 경찰, 직장직능 등 직능포교분야를 포함한다. 또 미술, 성보, 건축,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문화체육포교와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다문화 등 사회포교와 방송, 신문, 잡지, 출판 등 대중매체포교 및 신도교육 및 조직 운영 등 지역포교분야에서 헌신한 출재가자 및 사찰, 단체 등이다.

대상 후보자는 공적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로상 원력상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 또는 종단 소속 포교단체의 대표자나 종단 등록 신도단체의 대표자 추천서를 포함해 후보자 공적서와 이력서 등 서류를 포교원 포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상식은 11월에 개최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3기 불교크리에이터에 혜장 스님 등 선정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이 최근 전문가 및 교무위원 심사를 거쳐 제3기 불교크리에이터 4명을 선발했다.

불교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선발된 혜장 스님(메타몽크)은 '메타몽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한 불교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우수상 선정자인 권미희(팔방미희의 산사버스킹) 크리에이터는 찬불가 및 불교문화를 유튜브 영상 콘텐츠 통해 소개하고 있다.

우수상 선정자인 이현희(부다캣) 크리에이터는 부처님과 고양이를 접목시킨 부다캣 캐릭터를 인스타툰 형식으로 SNS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게시하고 있으며 박혜인(절로가는 해인이) 크리에이터는 전국 전통 사찰과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불교 문화를 알리고 있다.

포교원은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크리에이터로서 꾸준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획서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 웹툰, 유튜브 영상 등 도전적이고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기획을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 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용성조사 유훈 10사목은 '법계연기론'

"사법계가 생활에서 현실로 이뤄질 때 사바세계는 해탈의 세계를 성취한다"



■ 화정스님은

부처님을 부촉한 제 1세 마하가섭에서 시작해 중국 제28세 보리 달마대사, 고려말 태고보우조사로 이어진 석가여래부촉법은 제 68세 용성진종조사, 제69세 동헌완규대사, 제70세 불심도문 스님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불심도문 선사는 명법사 회주 화정스님을 제71세 부촉제자로 인가하고 그 법을 전했다. 앞서 화정스님은 용성조사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명법사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꾸준하게 복지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구호활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불교비구니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또 대만 제원사에 1억원의 불사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군포교를 위해 계룡대 홍제사 건립기금 1억원을 쾌척하고, 용성조사의 삶을 기록한 소설 〈25+10=X〉 발간과 〈용성평전〉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와 인연의 씨앗을 심고 있다.

명법사실천회 이사장 화정스님 통해 용성조사의 수행과 실천을 되새기다
용성조사 오도 136년 봉찬대재 봉행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지켜내며, 사회적 실천을 제시했던 용성진종조사 오도일(음력 8월 29일)을 맞아 용성조사대원명법사실천회(이사장 화정스님 · 평택 명법사 회주)가 용성조사의 유훈 10사목을 되새기며 사회적 회향을 선포한다.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 명법사에서 봉행되는 '용성조사 오도(悟道) 136주년 봉찬대재(奉贊大齋)'를 앞두고 화정스님에게 그 의미와 실천행에 대해 들었다.

명법사실천회 이사장 화정스님은 "대승불교의 진리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이를 실천하는 데 있다"며 "용성조사는 유훈 10사목을 통해 나와 중생이 일치되는 실천을 강조하셨다. 소승불교 수행은 삼불능을 어찌 할수 없다고 하지만 대승불교의 자비수행에는 삼불능도 없다. 용성조사의 깨달음과 유훈 10사목은 바로 이런 보살정신의 정수다"라고 강조했다.

삼불능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도 3가지는 못한다는 내용으로, 첫째 불능면정업중생(不能免定業衆生, 자신이 지어서 정해진 업보는 면할 길이 없다), 둘째 불능도무연중생(不能度無緣衆生,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셋째 불능진중생계(不能盡衆生界,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다 제도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화정스님은 불교의 수행이 개인적 깨달음을 기반으로 무릇 중생을 향한 요익중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승불교에서 삼불능은 없다. 용성조사의 유훈 9사목과 10사목은 이런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첫째로 개인이 지은 업보를 사회와 공동체의 선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예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극심한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모여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의 공업으로 개인의 악업을 멸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내는 것이 대승불교의 수행정신이라는 요지다.

둘째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는 것은 불교인의 관점이라고 지적한다. 다수의 종교는 선연의 공덕을 지으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나 여타 종교나 다르지 않다. 공덕 인연이 쌓여 다음 생에는 진리(불법)를 접할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하면서 종교를 가리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불교의 사회복지는 무릇 중생에게 선업의 인연을 쌓아 결국은 불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게 된다.

셋째 중생이 지은 업과 복이 서로 달라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용성조사께서는 유훈 10사목을 통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포교하고, 수계의 인연을 맺으라고 전했다. 선한 이나 악한 이를 가리지 말고 그 근기에 맞춰 모두 성불인연을 지으라는 가르침은 곧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이다.

"내 욕심을 버리면 더 큰 우리의 이익이 온다"는 스님은 "불교가 사회복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법계 상품(上品)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떠한 보살행, 즉 사법계 수행이 대승불교의 실천일까. 법장당 화정스님은 현대 사회의 포교 모습 가운데 몇가지를 꼽았다.

대중스님이 모여 선원과 승가대학 등에서 수행하며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사법계의 상품(上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2700년 이어온 조사와 선지식, 그리고 사부대중의 수행 공간을 마련한 창건주 모두가 상품이다.

화정스님은 "상품은 이사 수행을 한 선지식 뿐 아니라 수행의 힘이나 포교 원력으로 사법계 실천을 한 모든 사부대중 모두가 상품이다"고 말했다.

바르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한 실천적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 또한 상품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

스님이 말하는 이들의 특징은 '요익중생(饒益衆生)' 즉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사는 이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스님은 "왜 우리가 불교를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가. 바로 세상 모두가 함께 이익되기를 바라는 대승의 정신이 바로 요익중생이며, 부처님 가르침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화엄경에서는 법계를 첫째 모든 차별되는 개체로 구성된 현상계를 의미하는 사법계, 구별되는 개체속에서 일관되게 내재돼 있는 원리, 법칙 등 진리를 의미하는 이법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 사법계는 따로 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를 이사무애법계라고 한다. 끝으로 사사무애법계로 설명되는데, 이는 개체와 개체마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통합된 관계를 의미한다.

화정스님은 "결국 이법계와 사법계는 불이(不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보현행이 곧 불이사상에 근거한 이타행이다. 이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용성조사 10사목의 유훈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불심도문 선사로부터 가사와 발우를 전달받고 있는 화정스님.

용성조사 유훈 10사목

용성조사께서 열반에 드신 후 49일재를 봉행한 뒤, 상좌인 동헌완규 조사가 밀봉함을 뜯어보니 용성조사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유훈 10사목의 내용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야불교 초전법륜 폐허성지를 잘 가꾸어라.
2. 고구려불교 초전법륜 성지를 잘 가꾸어라.
3. 백제불교 초전법륜 성지를 잘 가꾸어라.
4. 신라불교 초전법륜 성지를 잘 가꾸어라.
5. 신라고도 성지 금오산과 진산인 낭산을 잘 가꾸어라.
6. 호국호법도량 신라 금오산 고위산 천룡사지(天龍寺址)를 잘 가꾸어 수도발원 교화도량의 언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여력(餘力)을 몰아 불타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과 불타성도성지 인도 보드가야 보리수원과 불타초전법륜성지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과 불타장구주석성지 인도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와 불타입멸성지 인도 쿠시나가르 사라수원을 잘 가꾸어라.
7. 불경(佛經)과 어록(語錄)을 백만권(百萬卷) 넘도록 발간 유포(發刊 流布)하라.
8. 3귀의 5계 수계법회를 통해 수계자가 1백만이 넘도록 할 것이며, 이 수계자에게 아들이나 내지 손자대나 증손자대에 가서 한 아들이나 한 손자나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길러서 잘 가르쳐서 부처님전에 출가 봉공케 하라.
9. 밖으로 온 겨레, 전 인류, 만 중생과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지으라.
10. 수행은 비묘엄밀(秘妙嚴密)하게 하고 교화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하되 악(惡)한이나 선(善)한 이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수용해서 〈묘법연화경〉 제20 상불경 보살품(妙法蓮華經 第二十 常不經 菩薩品)의 상불경보살의 수행을 본받아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지어나가라.

용성조사 오도 136주년 봉찬대재

용성진종조사 오도일을 맞아 용성조사대원명법사실천회에서는 조사스님의 업적과 수행을 기리고, 유훈 10사목을 실천하는 삶을 사부대중과 함께 서원합니다.

이날 법회에서는 세계 법계연기론 사법계 불사의 일환으로 미얀마 국민 지원금을 전국비구니회에 전달합니다.

일 시 9월 24일 (토, 음력 8월 29일) 오전 10시
장 소 명법사 불교회관 대법당
주요내용 용성조사 다례재
미얀마 지원금 전달식(전국비구니회)
'과학과 불교' 박문호 박사 축사

| 주최 · 주관 | 용성조사대원명법사실천회



“인재 양성할 교육·포교 혁신 불사 이루겠다”

범어사, 8월 29일 신임 주지 보운 스님 진산식

교육 혁신·포교 저변 확대·문화 융성
보운 스님, 범어사 3대 핵심과제 발표
지유 스님, “총림은 바른 인재 양성소”
범어문도 대책위 총회… 갈등 이어져



금정총림 범어사는 8월 29일 신임 주지 보운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의 공식 취임을 알리는 진산식이 열렸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8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임 주지 보운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덕문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해 주지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 혁신, 포교 저변 확대, 문화융성’을 범어사 3대 핵심과제로 발표하며 전법을 화두삼아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보운 스님은 “최고의 불사는 인재 양성에 있음을 자각하고 미래의 불교를 위한 불사를 이루고자 한다”며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내에 포교 신행단체들을 위한 공간을 신설해, 이들 단체들이 운영에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오직 포교에 진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범어사는 승가교육기관을 모두 갖춘 총림이자, 불교대학과 시민선방 등을 통해 재가불자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당 교육기관들의 운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참배객들이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부산 시민의 편안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향후 청사진도 소개했다.

방장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범어사가 올바른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불자들이 수호신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유 스님은 “중생이 괴로움을 덜도록 돕고 지혜를 양성하는 곳이 사찰이다. 특히 총림은 나무가 우거져 함께 성장하는 숲을 의미한다. 여러 나무가 자라는 곳, 인재양성을 위한 곳이며 올바른 사람을 키우는 곳이 총림”이라며 “진리를 전파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곳에 다른 욕심을 가지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삿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불자 여러분들이 수호신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삼혜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오늘의 뜻깊은 진산은 대외에 총림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금강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서원의 자리이자 불교의 가치를 국가와 지역에 뚜렷이 각인시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오늘 금정산에 함께하신 사부대중은 신임 주지스님의 서원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굳은 언약을 점검하는 신장이다. 신심과 원력을 지닌 사부대중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부산 불교의 미래는 더욱 빛나고 선명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새로 취임한 보운 스님은 범어사에서 주요 소임을 역임했으며, 종단이 어려운 시기 수년간 총무원 호법국장과 감사국장 소임을 맡아 누구보다도 청정승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조계종단의 수행 가풍을 확립하고 정화운동에 앞장서신 동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금정총림의 교구장으로서 정법안장에 원력을 다하고 교구 화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진산식을 통해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의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렸지만, 범어사의 내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 대책위원회(이하 문도 대책위)가 8월 30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도총회에는 동산 대종사의 1대 상좌 원두·흥교·선래·대성 스님과 정여·수불·선재·종훈·범산·법안·범일·정오·무관·도관·강하·상화·성공 스님 등 문도 스님 251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도총회에서는 前 주지 경선 스님의 참회와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도 대책위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문도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화합승가를 유린하고 총림을 독단으로 운영한 경선 스님은 대중 앞에 참회하라 △동산 대종사의 정신을 훼손한 스님들은 금정총림을 당장 떠나라 △범어문도 동의 없는 보운 주지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이 의장을 맡은 문도 총회에서는 △문중 공의 무시한 금정총림 주지 불신임의 건 △문중화합을 깨트린 자들에 대한 갈마(羯磨)의 건(갈마단 구성) △금정총림 발전과 문도화합을 위한 대책의 건 등을 다뤘다. 이를 통해 문도 대책위는 흥교·원두·대성·선래·홍선·종훈·화랑·선재 스님으로 임시 갈마단을 구성했다. 또한 대책위 소속 범위를 금정총림 재적스님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대변인 도명 스님은 “前 주지 경선 스님의 갑작스런 사임과 주지 임명에 있어 여러 의혹이 있고 대중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갈마 법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8명의 갈마 대표를 구성했고, 갈마단 대표스님들은 위임받아 30명 안팎의 갈마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장추대위원회 구성 등은 오늘 결의되지 않았다”면서 “평생 수좌로 살아오신 방장스님은 대중의 존경을 받는 스님이시다. 방장 선거 및 절차는 순리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방장 스님과 어른스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보운 스님은 “방장 스님이 주지를 추천하고 품신 받은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문도 대책위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주지 품신 과정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문도 대책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방장 스님은 주지 진산식 법어를 통해 ‘권력을 탐하는 삿된 무리는 없어야 한다’고 명백하게 뜻을 밝히셨다”면서 “주지 임명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방장 스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할 것이며 나는 방장 스님과 어른 스님들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 한가위 맞아 자비나눔

부산 해동용궁사·혜원정사 등
위기가정·학생 등에 쌀·성금



해동용궁사는 8월 31일 기장군청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한가위를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이 불도 부산 곳곳에서 전개됐다. 해동용궁사(주지 덕림)가 8월 31일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2000kg(1000만 원 상당)을 기장군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덕림 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해동용궁사에 신임 주지 덕림 스님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것을 약속하는 첫 나눔 행보로,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매년 2회 기장군청에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덕림 스님은 “저도 기장군에 살고 있는 기장 군민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그마한 나눔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장군민 모두가 어려움 없이 풍요로움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며 기장군청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해동용궁사는 지역과 소통하고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나눔 실천도량이다. 항상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자비의 쌀을 전하며 스님과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8월 30일 혜원정사 경내에서 ‘연제구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을 개최하고 지역민의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쌀 2000kg(200포대)을 연제구청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연제노인복지관, 연제구지역자활세터, 부산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연제구 관내 복지시설 4곳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과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여전히 코로나가 영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풍성함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가위이다.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맞고 전달식을 위해 이 자리를 찾아준 내빈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정종원)은 8월 31일 부산 서면 유원골든타워 사무실 내 법당에서 ‘추석맞이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선양복지원, 금정불교대학, 금강불교대학, 여래사불교대학, 부산 내 대학교 불교동아리(인제대,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해양대) 등에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종원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다.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 어느 곳보다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미소원, 풍경소리 게시판 교체 기금 전달

8월 26일, 백중기도비 500만 원 후원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8월 26일 법당에서 ‘풍경소리 지하철 노후 게시판 교체불사’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원후원금은 5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회원들이 백중 49일 기도 기간 동안 십시일반 모은 기도비로 마련했다. 이날 미소원은 지하철 포교 후원을 약정하는 31명의 후원 약정서 및 후원금 155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풍경소리 대표이사 목종 스님,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목종 스님은 “지하철 풍경소리 게시판은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게시판 교체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되살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며 “봉사단체이자 신행단체인 미소원에서 제일 먼저 마음을 내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미소원의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이 불사가 원만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읽는 풍경소리는 마음에 위안을 전하고 다짐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풍경소리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문서포교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풍경소리 게시판 교체불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이번 백중 기도비를 풍경소리에 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불쏘시개가 되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서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불사로 원만하게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음악캠프 성료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황산)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제2회 음악캠프 - 쓰담쓰담 쉼 음악여행’을 진행했다.

음악과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불교를 경험하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음악캠프에는 나모라어린이합창단(울산 황룡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홍법사), 무진선재단(무진선원), 상림어린이합창단(함양 서암정사) 선혜단이슬합창단(관음사), 슬기어린이합창단(대광명사), 혜원어린이합창단(혜원정사) 등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휘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1박 2일간 참가자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음악과 명상을 함께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연합회 총재 지현 스님은 “음악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이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이라며 “천진불의 모습대로 걷고, 먹고, 뛰어 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혜 스님, 그림 전시회 개막

작품 40여 점, 청량사 불사금 회향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이 9월 1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에서 ‘茶향이 절로 절(寺)로 보혜 스님의 그림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기장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황운철 기장군의원, 정영자 한국문인협회 고문, 오수련 부산예술총연합회 회장,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 문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보혜 스님은 “어느 유명화가의 권유로 우연히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색채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9월 8일까지 열리며 새와 도자기, 바다에 담은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의 수익금은 기장 청량사 불사금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한편, 보혜 스님은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0회 부산여성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7일 오후 7시 수영문화원 5층에서 열린다. 보혜 스님은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동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이사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전통문화 탐방

통영 한산도 제승당서



부산불교연합회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이 8월 25일 통영 한산도 제승당에서 문화 탐방 및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 1기 어린이 17명과 지도교사, 범어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벽해 스님 등 참가자 20여 명은 이순신 장군 유적지인 제승당에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활약상에 대해 배웠으며, 제승당 일대를 청소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연등회 및 팔관회 등 불교 대표문화활동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3월 각 사찰의 모집공고를 통해 선재문화 문화전승단 제1기를 선발했다. 1기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행렬등 제작, 부산연등회 연등행렬 참가 등 부처님오신날의 행사들을 체험했으며 정화 봉사활동 및 전통문화를 경험한다.

앞으로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팔관회의 호국불교 상징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팔관회 행사에 참여해 수계를 하고 호국 문화유적지 탐방 및 주변 정화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은 이번 제승당 정화 활동에 이어 9월에 부산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한 사명대사 호국광장, 11월에는 경주 일원의 문화유적지 탐방 및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라오스 대학들과 인재불사 협약

라오스의 한국어과 학생 지원
한국어 진행 ‘도전 골든벨’ 개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8월 27일 대적광전에서 ‘부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 라오스 인재불사를 위한 첫걸음-업무협약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성과보고회에서 주지 심산 스님은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한국 전통 불교문화 해외 홍보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인재불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산 스님은 “라오스 국립대학과 수파누봉대학교 등 두 대학에 있는 한국어학과와 협약식을 진행하고 왔다”며 “앞으로 인재불사 및 해외포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포교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 말했다.

홍법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의 대학 내 한국어과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돕고,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전통불교문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설 계획이다. 라오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도전 골든벨을 개최하고 입상자 및 교수를 한국에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다.

홍법사는 그동안 몽골, 티베트,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전 골든벨과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신흥사 '침묵의 향기' 사진전 개막

도재수 사진작가 작품 50여 점 전시…10월 31일까지

8월 27일 개막식 100여 명 운집
종현 스님 "지친 심신에 위안을"
도재수 작가 "기다림 미학 표현"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가 8월 27일 신흥사 신성루(神成樓) 문화전시 공간에서 '제3회 침묵의 향기 연꽃사진 전시회'를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은 8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도재수 사진작가의 연꽃 사진 50여점이 전시된다.

8월 27일 개막식에는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 염불암 성륜 스님, 낙서암 진원 스님, 신흥사 수인 스님, 도재수 작가, 박장영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전태만 지회장, 손영배 자문위원, 강병우 울산사진 써클연합회장, 김성동 한국미술작가협회 前 부지회장, 신흥사 신도회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시회는 개회식, 내빈소개, 커팅식, 주지 종현 스님 인사, 도재수 사진작가 인사, 강진희 울산시북구의회 의장 축사, 시 퍼포먼스(이숙례, 김수향, 박덕희, 오승미), 기념 사진촬영, 사진작가 라운딩 순서로 진행됐다.

신흥사 종현 스님은 "연꽃은 청아한 모습과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연꽃 사진전에서 수려한 여름 정취를 느끼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큰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도재수 사진작가는 인사말에서 "연꽃을 보면 어머님의 품속에서 나던 그리움의 향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생각이 맑아지는 시간이 되고 자연의 겸손함과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침묵의 향기 사진전 개막식에 모인 사부대중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한편, 울산 신흥사는 통도사 말사로 635년 명랑 스님에 의해 조성됐다. 창건 당시엔 건흥사(建興寺)라 불렸다.

신라 678년(문무왕 16) 때는 승병(僧兵) 100여 명이 머물며 무술을 연마하며 성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는 신흥사 주지 지운 스님이 이끄는 승병 100여 명이 울산 근교에서 왜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왜적들에 의해 신흥사는 소실됐고 찬란했던 불적들은 사라졌다.

이후 1646년 재건됐다. 울산 신흥사 주불인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 제2021-56호다.

"불교공부 회향공덕, 장애 이웃에 자비 나눔으로"

진주불교회관 수계법회 봉행
31기 50명 졸업, 승보공양 · 나눔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은 8월 30일 진주불교회관 3층 대법당에서 가야불교대학 제31기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가야불교대학학장 보선 스님, 하동 무불관 철현 스님, 사천 평안사 지현 스님, 진주 무원정사 성각 스님, 고성 옥천사 청련암 원명 스님, 하동 북천사 재현 스님, 능륜 스님, 하동 연암난야 도현 스님, 하동 양천사 허경 스님 등과 진주불교회관 제31기 가야불교대학 도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계법회에서 홍수승 이사장은 "가야불교대학 제31기가 회향하는 날로 매우 뜻깊다"며 "법화경독송회 장학금 전달식으로 자비나눔 봉사정신과 실천행도 함께 이뤄져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8월 30일 진주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1기 수계법회서 참가자들이 발원하고 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법화경독송회가 독송 2500일을 기념해 장애인 백내장수술비 150만 원을 이금자 씨에게 전달했다. 또 진주 평안사 장학회에서 장애인으로 진주보건대학 복지과 재학 중인 단비 학생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술비와 장학금을 대신 전달받은 유홍근 장애인협회회장은 "진주불교회관에서 전달한 장학금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사회 일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뤄져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평안사 지현 스님은 "가야불교대학 시작 당시에는 차츰 인원이 줄어 걱정이 됐는데, 31기까지 회향하게 돼 기쁘다. 포교와 봉사활동을 하는 멋진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고성 옥천사 원명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계를 잘 지키고 포교사도 되어 함께 불교발전에 나서자"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년 봉사, 최흥철 대구경북BTN합창단장

9월 5일 봉사 시작으로 코로나 이후 활동 포부

2018년 11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대구경북 지역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음성공양팀인 '대구경북BTN불교TV합창단(단장 최흥철)'이 탄생한 자리였다. 활발한 활동을 다짐한 것도 잠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성공양 봉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 '대구경북BTN불교TV합창단'이 다시 한 번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구경북BTN불교TV합창단은 9월 5일 대구 교도소 추석맞이 봉사활동과 송편 전달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10월 경에는 동화사 · 파계사 · 한국불교대학 등과 함께하는 콘서트 연주회도 추진 중이다.


최흥철 합창단장.

2018년 11월 명칭 바꿔 재창단
코로나 팬데믹 딛고 활동 재개

최흥철 단장은 "지역과 불교계를 위해 정법포교 현장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경북BTN불교TV합창단'은 합창단이 없는 사찰에서 음성공양을 올리는 사실상 유일한 연합합창단이다. 35명의 회원들이 인연법에 따라 모여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음성공양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들을 이끄는 최흥철 단장은 2007년부터 영산불교합창단을 창단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효성여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졸업 후 음악학원을 운영했던 최 단장은 2007년 52세의 나이에 제2의 인생으로 불제자로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서원했다. 학창시절부터 불교 동아리인 마야회 활동을 하는 돈독한 신심이 기반이 됐다. 이후 지인들과 함께 합창단을 구성해 대구교도소 등 소외된 곳과 합창단이 없는 사찰을 찾아다니며 매주 봉사를 해왔다.

최 단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심을 기반으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오고 있다"며 "2018년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제2의 창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앞으로도 더욱 더 큰 열정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10-8935-3677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과학원 '생활포교' 승려연수교육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황룡원에서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승려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승려연수과정에서는 '코로나19 법회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주제로 새로운 포교방안과 법회운영 등 교육이 진행됐다.

8월 24일에는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의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방안' 강연과 함께 박종래 서울대 교수의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강연, 25일에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의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황수경 동국대 교수의 '생활 속의 마음공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의 '뉴노멀 시대 법회 활용 방안' 강연이 진행됐다.



26일에는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포교' 강연과 함께 승려연수교육은 마무리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1강부터 6강까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연계되는 것이 좋았다. 불교의 과학적 증명 사례를 들어 좋았다. 현대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의 모습에 감명 깊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마음과학원 측은 불교의 현대적 고민을 함께하고 나누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리산 천은사 · 사성암, 산사음악회 눈길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는 지난 8월 27일 경내 일주문 앞에서 '양수경과 함께하는 천은사 여름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음악회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前 주지 종호 스님, 대진 스님을 비롯해 윤명수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장 등 500여 대중이 참여했다.

행사는 1980, 1990년대 국민요정으로 큰 인기를 누린 가수 양수경 씨와 바리톤 임준식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양수경 씨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사찰이 자신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며, "추후 템플스테이 등에 참여해 산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천은사는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매일 도량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갈히 하여, 항상 기도소리와 종소리로 온 도량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 사성암(주지 우석)도 '2022 사성암 여름밤 낙樂 극장'을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6회 茶詩樂의 밤 개최

8월 27일 정관암 경내서 열어
시낭송 · 노래공연 등 눈길

문수산 정관암(주지 대활)과 차시락의밤 운영위원회는 8월 27일 제6회 차(茶) · 시(詩) · 락(音樂)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정관암에서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제1부 전통차 시음회와 제2부 제6회 울산연주인상 시상식, 제3부 시낭송과 각종 공연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관암 대활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현암사 현암 스님, 이순걸 울주군수, 김영철 울주군의회의장, 변희섭 서범수 국회의원, 서진길 연주인상 심사위원장, 이병호 울산불교연합회장, 이희석 한국예총울산시연합회장, 정은영 울산문인협회장, 서순화 울산국악협회회장, 이국세 정관암 신도회장, 울주문화재단 관계자 및 신도회 군민 지역주민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운사, 10월 '최치원문화제' 추진한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가 '최치원문화제'를 추진한다. 고운사는 8월 17일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73차 교구종회를 갖고 '최치원문화제 축제안건'을 가결했다.

그동안 고운사는 산발적으로 최치원 관련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축제안건을 통해 10월 14~16일 '최치원문화제'를 열며 최치원 학술대회, 청소년 문화예술제, 고운사 사찰음식체험 문화제, 최치원 특별 전시회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고운사는 같은 날 문화제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최치원문학관장인 정우 스님을 위촉했다. 또 공동단장으로 천명희 안동대 교수, 기획위원장으로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 운영위원장으로 박순 경북불교문화원장, 홍보위원장으로 임유주 안동MBC PD 등을 위촉했다.

한편, 고운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 성공리에 진행한 고운사 천년숲 맨발걷기를 '달빛 만행'으로 확대할 것도 발표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논산 쌍계사 석가여래삼불상 개금불사 성료

논산 쌍계사(주지 종봉)는 9월 4일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개금불사 및 복장불사 회향식을 개최했다. 보물 제1851호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불모 원오 스님이 1605년 신현 청허 신일 회춘 스님과 함께 봉안한 것으로 당시 임진왜란으로 피해가 큰 사찰의 전후복구와 위민을 위한 중창기여서 쌍계사에 봉안했다.

주지 종봉 스님은 "이번 개금불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역사적 상처와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사는 10시 점안의식을 시작으로 11시 법요식, 12시 헌공의식 등으로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천호월서희망재단 월서 대종사, 자비나눔

미얀마 양곤 사찰 학교 건립 및
공덕동 소외청소년 도와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천호 월서 대종사는 8월 18일 미얀마 양곤의 한 사찰에 교실 신축기금으로 3400만 원을 지원했다.

미얀마 양곤의 해당사찰은 군부 쿠데타 이후 학교 선생님들이 잡혀가고 학교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찰은 그동안 교실이 부족해 식당과 법당에서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천호월서희망재단 기금으로 2층 건물의 교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해당사찰은 "전시 상황 속에서도 미얀마의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와 함께 월서 대종사는 9월 1일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20명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월서 대종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움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성림당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재 봉행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8월 31일 경내 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 대종사 25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다례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관장 종상 스님, 대학원장 덕민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월산 대종사의 유훈을 기렸다.



이날 〈월산 대선사 생애와 중도선 사상〉 학술지 편찬 공로로 보광 스님 등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캄보디아, 불교정신으로 기업가 양성 인기

'비즈니스 삼마막가' 과정 화제
6개월 과정…1천명 이수 '인기'
불교 가르침에 경제활동 접목
저명 불자 기업가 교수진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 기업가를 육성하는 '비즈니스 삼마막가' 프로그램의 수료증을 받는 캄보디아 기업가들. 사진출처=크메르 타임즈

불교정신으로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비즈니스 삼마막가(Business Sammamagga)'가 캄보디아에서 화제다. 지난 8월 23일 캄보디아의 '크메르 타임즈'는 기업가 정신과 불교의 가르침이 성공적으로 융합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캄보디아 최고 국가경제 위원회(SNEC)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삼마막가'는 부처님의 바른길(Sammamagga)을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가 정신과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삼마막가 측은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이 지적하듯이, 전통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불교 가르침과 경제원칙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불교 가르침과 윤리가 기업가의 이익창출과 개인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될수 있음을 증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6개월 과정이다. 지난 6월 1차 과정의 첫 수료생들을 낸 이래, 최근 2차과정을 개강하면서 거의 2배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 삼마막가는 "이는 비즈니스, 혹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불교 가르침을 실행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반영한다"면서 "이 교육을 받은 기업가는 사업의 운영과 성장, 효율성과 같은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불법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이해하며 양자의 조화를 맞출 수 있게 된다.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SNEC의 수석고문인 메이 깔리얀은 "캄보디아에서 출재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이나 관습을 따라 불교를 수행하지만 이것은 실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생활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학식과 수행을 갖춘 전통 불교수행자들과 경험이 많고 저명한 기업가들이 함께 검토하고 준비한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여타의 다른 불교경제 교육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깔리얀은 "단기참가자를 포함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최소 1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프놈펜 근교에 설립된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명상 시간을 가진다. 교육은 실제 불교를 기반으로 사업에 성공했거나, 불교적 사업원리에 밝은 현직 기업가들이 진행한다.

지난 6월 1차 프로그램을 수료한 한 사업가는 "부처님은 우리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과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셨고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역시 부처님께서 재가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이라고 교육 성과를 밝혔다.

삼마막가 측은 "1차 수료생들의 성공담들이 퍼지며 2차 등록정원이 초과하면서 벌써 3차 등록 예약도 거의 다 채워졌다"고 전했다. 삼마막가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범위로 수업과 훈련의 수는 증가하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기업가의 수는 20명으로 유지될 것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농기계, 부동산, 환전, 수출입 등 대규모 사업주들이다"고 전했다.

日 외국인 스님, 수목장으로 도량 '부흥'

종교 불문…반려견 묘도 가능
관광 · 기업 위한 좌선 강의도


새롭게 조영된 수목장 부지를 소개하는 지지츠 스님. 사진출처=카나가와 신문

저출산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신도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일본 불교계. 외국인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한 고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찰을 경영하며 도량의 부흥을 이뤄가고 있어 화제다. 지난 8월 22일 일본의 '카나가와 신문'은 새롭게 부흥하는 고찰 간슈지(願修寺)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카나가와현 오다하라(小田原)시에 소재한 간슈지는 15세기 초 건립된 임제종 사찰이다. 2016년 주지로 부임한 이와야마 레오 지지츠 스님은 "부임 당시 등록된 신도가 단 2가구로 경내외의 여러 시설이 모두 노후화, 황폐화돼있었다. 수입은커녕 적자 상태로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지지츠 스님은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을 이용해 2개월간 일본의 선사에서 단기수행을 체험한 것이 불문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다. 스님은 학인생활을 마칠 무렵 간슈지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고, 주변의 만류에도 사찰에 부임을 결정했다.

부임 후 스님은 2020년, 기업연수에 좌선을 도입한 강의를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사찰 근처의 오다하라성(小田原城) 관광객들을 위한 좌선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중 교계 안팎으로 주목받는 것은 수목장 도입이다.

경내 부지를 대형정원으로 꾸미고, 종교를 불문하고 반려동물도 함께 잠들 수 있는 수목장 부지를 개설했다. 스님은 "극락정토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에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묘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슈지 측은 이미 개설된 수목장 묘역의 80구획이 모두 예약됐다고 전했다. 수목장의 경우 특정 묘역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간슈지는 최근 남은 묘역과 경내의 여유부지를 포함해 약 300평방미터를 정원과 수목장부지로 개장했다. 현재는 법당도 재건축 중이며, 내봄에는 임대아파트를 병설한 새로운 사찰로 거듭난다. 아파트를 병설하는 것도 스님의 새로운 도전이다. 전통적인 사찰경영의 틀을 바꾸고 있는 외국인 주지스님의 도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 황무지서 '포교 꽃' 피운 세계 최북단 사찰

러시아 닷산 다쉬 노르불린 사원
포교당서 지역문화 중심지 우뚝


세계 최북단 사찰인 닷산 다쉬 노르불린 전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불교 황무지와 다름없던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8년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 최북단 사찰 '닷산 다쉬 노르불린'(Datsan Dashi Norbulin)이 화제다.

불교 관련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8월 24일 지역 포교당으로서 역할을 넘어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 중인 닷산 다쉬 노르불린을 조명했다.

닷산 다쉬노르불린은 러시아의 극동연방관구 중 이른바 '야쿠티아'로 알려진 사하 공화국에 지어진 사찰이다. 사하 공화국은 극동연방관구에서도 가장 큰 연방 주체로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극한 기후 지역으로 꼽힌다. 소수민족인 야쿠트족(Yakuts) 50%, 러시아인 37.8%, 또 다른 소수민족인 부랴트족 0.8% 등으로 구성됐다.

이 지역에는 약 7000명의 불교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 15년 전만해도 불교 사찰은 커녕 수행 공간조차 없었다.

이에 사하 공화국에 거주하는 부랴트족 공동체는 1998년 부랴티아 공화국에 위치한 이볼긴스키 닷산(Ivolginsky Datsan, 러시아 불교전통승가단체)에게 라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볼긴스키 닷산은 다쉬 초인콜린(Dashi Choinkhorlin) 불교대학을 졸업한 예셰 단다르 라마를 사하 공화국으로 보냈다.

단다르 라마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연꽃 불교 공동체'라는 종교 단체를 설립하고 2009년 사찰 건립에 착수했다. 같은 해 공화국의 중심부에서 약 12km 떨어진 소나무 숲에 터를 정하고 공사가 시작됐다. 사찰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전세계 불교도들의 기부가 줄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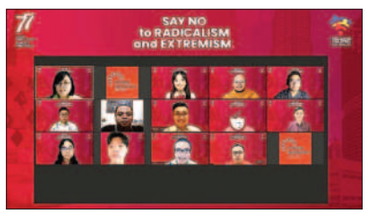
사찰은 5년 후인 2014년 10월 2일 봉헌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닷산 다쉬 노르불린은 불교 사찰일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언어를 가르치고 전시회를 여는 등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극동연방관구(FEFD)는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인구는 적은 지역이다. 극동연방관구에는 많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데, 약 3.3%가 불교도로 알려진다. 특히 극동연방관구의 11개 연방 주체 중 부랴티아 공화국, 자바이칼 변강주, 사하 공화국 등은 부랴트족에 의해 발전된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중심지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니 · 말레이 불자들, 극단주의 해결 '합심'

'관용' 주제 온라인 포럼 개최
"중도는 갈등 해결 최선 방법"



급단주의 위험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청년불교협회 회원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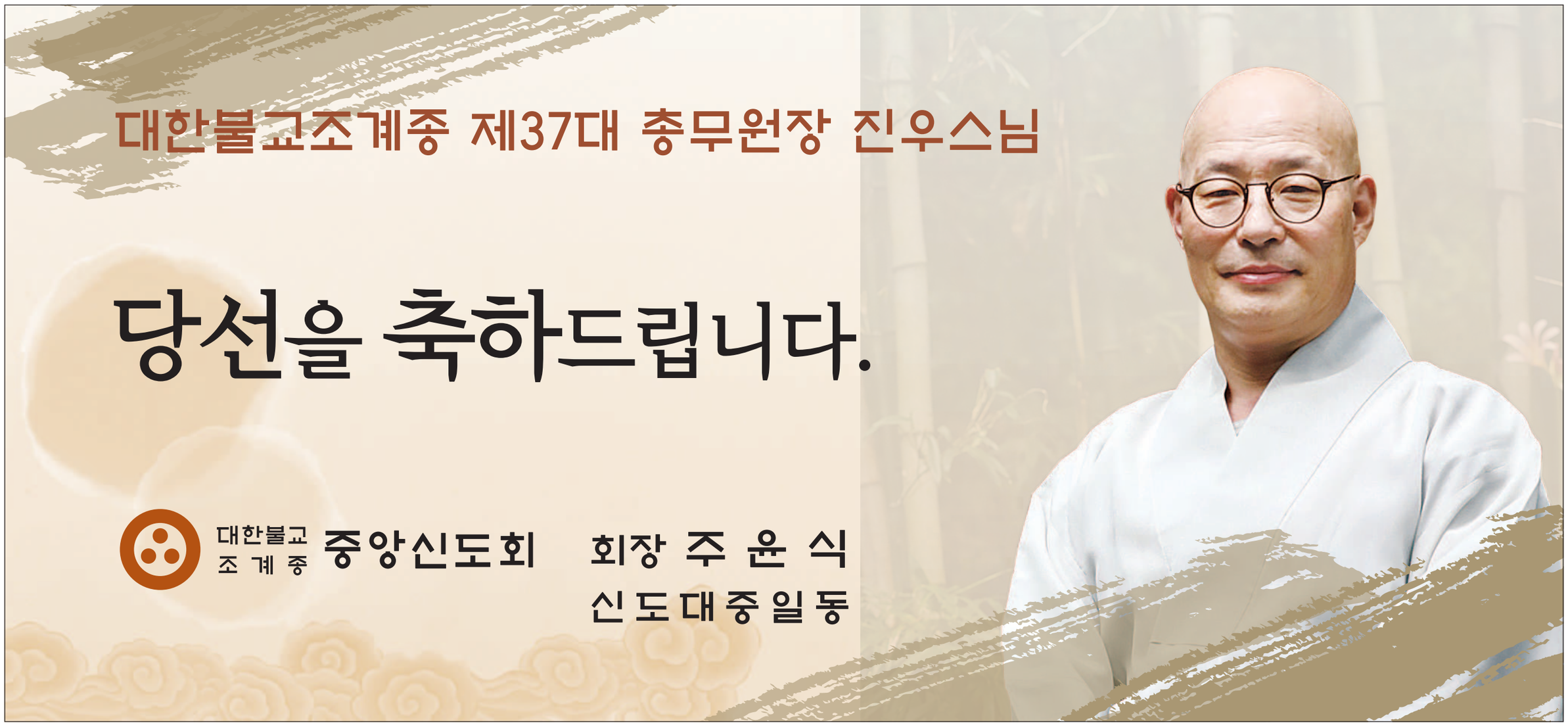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청년 불자들이 '혐오'와 '극단주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부디스트도어의 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각 청년불교협회는 급진주의와 극단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보다 조화롭고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8월 17일 '제77회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기념 온라인 종교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는 인도네시아의 불교 활동가와 이슬람 종교인 등이 참석, 종교 간 화합과 관용에 대해 연설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불교협회 소속 빌리 루키토 조스완토는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혐오' 문제를 무시한다면 급진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급진주의와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승려 반테 디라푼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사랑과 연민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라. SNS에 내 손가락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항상 경계하라"라고 역설했다.

또 말레이시아 청년불교협회 사무총장 에오 시앙 옌은 "부처님 가르침 중 '중도'는 극단주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라며 "너무 극단적이지도, 너무 수동적이지도 않은 중도의 길이 극단주의와 급진주의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출가’가 갖는 가치는 곧, 불교의 정체성



출가정신의 전개
김호성 지음
민족사 펴냄
2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출가, 가족 및 세속과 이별 고하는 것

전국 사찰에 스님이 줄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이 크다. 조계종서 밝힌 사미 · 사미니 수계자 현황에 따르면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출가자가 줄어들었다. 2010년 287명, 2015년 204명을 기록한 뒤 2016년부터 100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 157명, 2017년 151명. 이후 2020년 수계자는 131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보다 75.3%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는 1만 3000여명의 스님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사찰에서 행자 교육을 받는 동안 중도 포기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한 해에 적게는 6%, 많게는 30%의 행자가 출가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출가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출가 즉 입산해 불도를 닦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족 및 세속과 이별을 고하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출가해 스님이 되면 생활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삶의 가치관(깨달음)도 다르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예불 등 수행 일과를 마치고, 저녁 9시에는 취침해야 하는 출가자의 일상 자체가 버거울 수 있다. 일반인들의 삶의 목적이 개인적 성공, 명예를 통한 행복에 있다면 불교에서 출가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니르바나(열반)를 이루는 것이고, 사회적 · 이타적으로는 중생제도, 즉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있다.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두 가지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의 수행을 하며, 자비행, 보살행, 불살생(살생하지 않음), 불음주(술을 마시지 않음), 불사음(음행을 하지 않음) 등 계율을 준수하고, 무소유(無所有)의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붓다의 출가 정신은 개인적인 목적(니르바나)보다는 이타행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타마 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후 입멸할 때까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제도에 헌신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힌두교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평민들, 사성제도(四姓制度)로 억압받는 인도 하층민의 해방을 위해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고 설하며 중생제도를 한 붓다의 삶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출가에 대해 중국 유교의 배불론자들은 불효,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주자학, 신유학이 정치 이데올로기인 조선조 500년 동안 유생들 역시 불교를 비판했고, 비판의 논리 역시 불효, 불충, 인륜을 저버렸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초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선사는 〈(파사 현정론〉을 지어 배불론자들이 제기한 것에 대해 낱낱이 항변했다. 불교의 오계와 유가의 오상을 연결해 불살생은 곧 인(仁)이요, 불투도는 곧 의(義)며, 불사음은 곧 예(禮)요, 불음주는 곧 지(智)요, 불망어는 곧 신(信)이라 해석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출가의 가치와 본질, 바람직한 삶 조명

이 책은 붓다에서 법정까지 출가의 의미에 관하여 고찰한 책이다. 1부 인도의 출가정신, 2부 한국의 출가정신, 3부 일본의 출가정신, 4부 출가정신의 확장으로 목차를 나누었지만, 크게 주제는 출가의 가치, 출가정신의 본질, 그리고 출가자의 바람직한 삶, 권력과의 거리두기로 볼 수 있다. 출가정신에서는 인도, 한국 그리고 일본의 출가정신을 고찰했다. 인도의 출가정신에 대해서는 붓다의 출가정신과 목적, 의의를 대표적으로 고찰했다. 힌두교적-유교적인 ‘효(孝)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 비로소 말해지는 가부장제 또는 가족주의 문화의 탈피를 훨씬 앞선 시대에 붓다의 출가를 통해 감행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 그러한 가족주의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이 국제정치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비폭력 평화의 윤리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의 출가정신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로 보조국사 지눌의 출가 정신을 고찰했다. 보조지눌은 25세에 승선(僧選)을 끝으로 탈권력 하여 당시 수도인 개성을 떠나 하가산, 조계산(송광산) 등 지방으로 내려가 출가 본연의 정신을 지키고자 정혜결사를 주도해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출가정신에 대해서는 은둔의 삶을 살았던 둔세승(遁世僧)들의 출가정신을 고찰했다. 이 둔세승들은 모두 탈권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권력에 아부하고 편승하는 것은 올바른 출가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도겐(道元, 1200-1253)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출가 이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에 안주하는 자리(自利)적 삶에서 나아가 널리 자비의 말씀을 전하는 중생제도의 실천적 삶을 살았다. 이 두 가지 붓다의 얼굴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깨달음과 자비 이타행 실천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갖출 때 출가정신이 올곧게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붓다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전자, 즉 깨달음을 이룬 각자(覺者)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왔다. ‘실천행자 붓다’가 더 중시한 모습을 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얼굴에 대한 조명은 불교 안에서보다는 힌두교의 개혁자 비베카난다에 의해서 행해졌다.

출가정신, 권력과의 거리두기 중요

출가정신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권력과의 거리두기’이다. 탈(脫)권력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는 왕자였던 붓다의 출가가 장차 자신에게 주어지는 왕법 내지 왕권의 장악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점에 그 뿌리가 있다. 권력 문제는 교단 밖의 정치 권력과 교단의 관계에서도 말해질 수 있고, 교단 안의 정치문제로도 말해질 수 있다. 이 책의 제2부 2장의 논문과 제3부 1장의 논문은 모두 교단 밖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출가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제1부 1장, 제2부 1장과 3장의 논문들이다. 바람직한 출가자의 모습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비록 이타행을 위해 계율을 깨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계율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 계율을 잘 지키더라도 계율을 깨뜨리는 자를 경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간소하게 살기,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무소유(無所有)의 실천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 놓았다.

저자는 책 서두에서 “재가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출가의 문제는 결국 출가하신 스님들의 문제이지, 우리 재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출가, 재가, 그리고 비승비속〉 논문을 읽었으면 좋겠다”며 “이 책에 들어있는 논문들에서는 출가정신이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되고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가자들에게도 장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그다지 강조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점은 〈정토불교성립론〉에 수록된 〈출가, 재가, 그리고 비승비속〉을 통해 충분히 논의 됐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저자 **김호성 교수**는?

동국대 불교대학 인도철학과서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1996년 〈선관(禪觀)의 대승적 연원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후, 1997년 9월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로 부임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2002년 일본 붓쿄(佛敎) 대학과 2013년 고치(高知) 대학, 그리고 2018년 류코쿠(龍谷) 대학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그동안 펴낸 학술서적으로 〈대승 경전과 선(禪)〉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불교해석학 연구〉 〈경허의 얼굴〉 〈바가바드기타의 철학적 이해〉 〈힌두교와 불교〉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 등이 있다.

200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나무아미타불〉을 번역하면서,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토로 회향하기”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토불교를 연구하는 한편 정토신앙을 널리 권진하고자 하였다. 정토의 신심을 노래한 시집 〈꿈속에서 처음으로 염불춤을 추었다〉와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을 펴냈다. 2005년부터 일본불교사 독서회에서, 2017년부터 정토불교 학술세미나 모임에서 현재까지 권진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 주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흑백예술 탁본으로 보는 세계 불교미술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추석 특별전
'흑과 백, 두드림의 예술–세계불교미술탁본 II'
9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중·일 등 불교미술 탁본 50여 점
국내 최초 공개 인도 불교미술 탁본
중국 당 시대 〈묘법연화경〉 등 다양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추석을 맞아 특별전을 개최한다.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2022 추석 특별전 '흑과 백, 두드림의 예술 - 세계불교미술탁본 II' 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불상이나 석탑 등의 표면에 종이를 대고 먹을 두드려 만든 탁본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지난 2017년에 열린 '세계불교 탁본 전' 이후에 새롭게 수집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불교미술 탁본 50여 점이 전시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의 4기 불교기관 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인도의 아잔타 석굴을 비롯하여 중국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도황석굴, 하남성 안양 대주석굴의 탁본과 한국의 석굴암 탁본 등을 소개하는 '석굴사원 탁본전'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석굴사원의 시작인 인도의 아잔타 32굴의 여래상 탁본을 비롯하여 중국의 운강석굴의 수하 반가사유상 탁본, 돈황석굴의 막고굴 표지석 탁본 등 석굴사원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아잔타 석굴은 인도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아잔타 인근에 있는 불교 석굴이다. 기원전 2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지어진 석굴들로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석굴의 내부에는 인도의 불교 예술 발달상을 보여주는 벽화와 부조들이 남아 있다. 이번 특별전의 탁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작품 중에는 국보 제29호인 석굴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탁본을 비롯해 실상사파종비천상 탁본, 천은사사천왕(고려시대) 탁본,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탁본, 상원사 범종 비천상 탁본 등 범종의 비천상 탁본과 국보 제53·54호인 전라남도 구례군 연곡사 동부도·북부도에 새겨진 사천왕, 팔부중 탁본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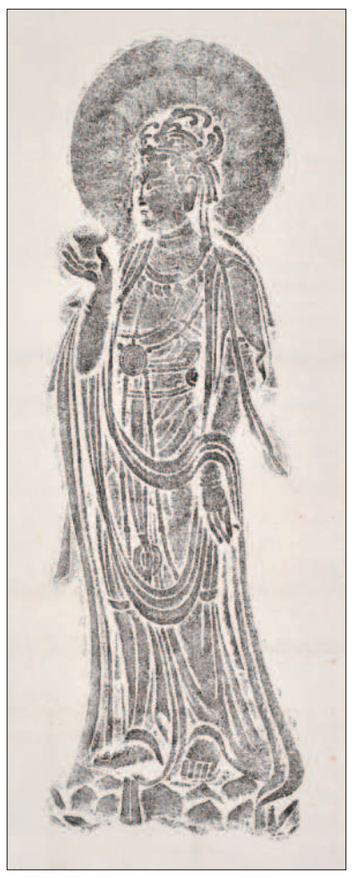
석굴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굴암 안쪽의 주벽에 새겨진 조상 가운데 입구에서 두 번째 상으로 대범천·제석천의 2천과 십대제자의 중간에 위치한 보살상이다.

두 보살상은 한결같이 원형의 소박한 두광을 지닌다. 머리에는 삼면의 보관을 썼고 귀와 가슴 등에 구슬로 된 장식이 달려 있다. 천의(天衣)는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세의 불행한 과보 속에 얽매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볼 수 있는 비천은 천계에 머물면서 하늘을 날며 춤·향·꽃 등을 불보살에게 공양하는 천인으로, 그 모습에 따라 공양비천, 주악비천, 산화비천 등으로 불린다. 인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악천(樂天·Aspara)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불교에 수용되면서 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꽃을 뿌리는 천인으로 조각·회화·공예를 장엄하는 데 표현되었다. 불교의 정토세계에서는 악기를 연주하고 허공을 날면서 꽃을 뿌리는 등 부처님을 공양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한국의 비천은 범종의 주악비천이 으뜸이자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탁본으로 전시되는 성덕대왕신종 비천상과 상원사 범종 비천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천왕은 수미산 정상의 중앙부에 있는 제석천을 섬기며, 불법뿐 아니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동쪽의 지국천왕, 서쪽의 광목천왕, 남쪽의 증장천왕, 북쪽의 다문천왕을 말한다.


석굴암보현보살 탁본


석굴암문수보살 탁본

팔부중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천(天)·용(龍) 등 여덟의 신장(神將)을 말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인도의 부처님 일대기 석불 탁본 등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다양한 인도 탁본들과 중국 당나라 시대의 묘법연화경 탁본, 천불고 탁본, 오대시대에 제작된 특이한 모습의 관음탁본, 소림사가 자랑하는 달마대사 탁본 등이 소개되며, 일본이 자랑하는 나라 도다이지(東大寺) 대불 광배의 불보살상, 야쿠시지(藥師寺)탑의 수연부를 장식한 좌우 비천상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환희불, 티베트의 문수보살상 탁본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작품으로는 하남성 안양 대주석굴에 새겨져 있는 '석가거세전법정사' 탁본이다. '석가거세전법정사 탁본' 은 북위시대에 조성된 하남 안양 대주석굴에 새겨진 중국 불교사 최초의 도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으로 석가모니불 이후의 계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작품은 부처님 이후 법을 전해 받은 가섭존자로부터 스물 네 분의 조사들이 대좌형식으로 6층에 나누어 배치되어 있으며, 움직임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 불교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요즘은 문화재를 탁본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데다 온전히 남아 있는 유물도 많지 않아서 이번 특별전을 통해 희소성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 작품들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 불교미술의 다양성을 통해 보편성과 차별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람을 부탁했다.

고판화박물관은 특별전 기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와 탁본 체험도 진행한다. 문의 (033)761-7885.

청허 서응 스님 한국화 선서화 展

부산시민회관 9월13~18일
수행·삶 담긴 선서화 50여 점


청허 서응 스님 作, 해수관음상

부산 천마산 자락의 묘심사 주지 청허 서응 스님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제1전시실에서 '청허 서응 스님 한국화 선서화' 展을 연다.

청허 서응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수행의 결실과 삶을 오롯이 담아낸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스님의 그림은 관음보살, 달마대사 등 불교적인 소재부터 재래시장의 서민 풍경, 자연, 도시 등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담고 있는 청허 서응 스님의 그림은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휴식과 따뜻함을 선사한다. 스님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대중이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한다.

스님은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일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왔다.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헛된 생각을 하면 다른 채색이나 그림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늘 기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림이란 결국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화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소한 경치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에 그러한 부분도 정겹게 표현해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했다"고도 전했다.

청허 서응 스님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선서화과를 졸업했다. 전국 선서화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했으며 전국미술대전에서 입상했다. 각종 단체전과 회원전에 다수 출품했다. (051)242-1608.

박재완 기자

'안윤지의 춤 舞 發現 舞 興'

9월 25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예지당



이매방의 춤맥을 잇고 있는 무용가 안윤지〈사진〉가 첫 개인공연을 갖는다. 안윤지는 9월 25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예지당에서 '안윤지의 춤 舞 發現 舞 興' 을 개최한다.

김명자 문하에서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을 배우고 있는 안윤지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손짓, 발짓, 눈빛에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색깔로 담아낸 '안윤지의 춤' 을 선보인다.

안윤지는 공연에서 살풀이춤(이매방류 임이조제)과 화선무(임이조류), 승무(이매방류 임이조제)를 선보인다. 살풀이춤은 1935년 부민관에서 처음 초연됐으며, 故 한성준에 의해 살풀이춤으로 명칭이 고정됐다고 한다.

화선무는 꽃 그림과 부채가 어우러진 춤으로 꽃 화(花), 부채 선(扇) 자를 써서 '화선무' 라고 이름이 붙여진 창작 전통춤이다.

승무는 염불, 도드리, 느린타령, 자진타령, 굿거리로 구성되며, 해탈과 희열을 북으로 표현한다. 1987년 故 이매방이 승무 보유자로 지정됐다. 특히 힘과 신명이 뛰어난 춤사위,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와 호화로운 장삼놀음, 춤의 경건함을 밟아가는 듯한 매서운 발 디딤새, 세차고 멋들어진 북가락이 일품이다.

안윤지는 "이매방 선생님의 춤맥을 잇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던 스승님의 정신을 좇아 저 역시 김명자 선생님 문하에서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을 새로이 배우며 정진하고 있다"며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눈빛 하나에 스승님의 말씀을 안윤지의 색깔로 담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051)811-0114.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회 주 황산 혜창
주 지 운해 법보
직지사복지재단 대표 신산 법성
직지사승려복지회 회장 웅산 법등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해인사 신라시대 '쌍둥이 목불' 국보 승격된다

법보전·비로전 비로자나불상 문화재청 9월 1일 지정 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불 인정
2005년 내부서 조성 묵서 발견돼
AMS 등 조사 통해 9세기作 확인
조각 수법 훌륭… 복장도 가치 커
조선불화·전적 등 7건 보물 예고
부석사 안양루·범종각도 보물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불인 보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왼쪽)' 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오른쪽)' . 국보로 승격 예고됐다.

현존하는 국내 목불(木佛) 중 가장 오래된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상 2점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인 보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은 각각 합천 해인사의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모셔졌으나 지금은 '대비로전(大毘盧殿)' 에 함께 안치돼 있다.

일명 '해인사 쌍둥이 불상' 으로도 알려진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불좌상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최고(最古) 목불이 된 계기는 드라마틱하다. 해인사는 지난 2005년 법보전 불상을 조사했고, 불상 몸체 안에서 나무판에서 신라 헌강왕 시기인 883년 조성했다는 묵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목조불상이 한 점도 없었고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아 당시 학계 일각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의 시선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해소됐다. 2005년 12월에 열린 '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 에서 박상진 경북대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3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에서 4개의 표본을 채취해서 서울대에 AMS(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보전 비로자나불의 AMS연대 값은 AD730±40년,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AMS연대 값은 910±40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채취된 표본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나무의 다듬어진 부분을 감안해서 나무의 나이를 파악,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같은 작업을 거쳐 법보전 비로자나불은 AD740년 전후부터 950년 전후,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은 AD950년부터 109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실시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도 통일신라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고,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의 '9세기 조성' 은 정설로 자리잡게 됐다.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비로자나 부처의 수인(手印)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주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각의 완성도가 높다.

불상과 더불어 복장유물 또한 한국불교사와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해인사는 1489년에서 1490년 동안 조선왕실의 후원을 받은 당대 최고의 고승 학조 대사에 의해 중창됐으며, 복장유물에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 동안 이뤄진 불상의 중수과정에서 추가로 납입된 전적류와 각종 직물들이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뛰어난 조형성과 역사성은 물론 종교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우수한 불상"이라며 "불교사적 의의가 큰 복장유물과 함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불화인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와 고려~조선시대 불교 전적 5점 등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했으며, 8월 26일에는 영주 부석사 안양루와 범종각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는 1755년(영조 31) 수화승 태전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해외로 유출된 후 60여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됐다.

불교전적 분야에서는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4건과 〈법화현론 권3~4〉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영주 부석사 안양루와 법종루는 16·18세기 사찰 전각 건축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함안 강명리 사지서 통일신라 금동불 4구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 발굴 설명회
청동소탑, 철종 등 10여점 발굴
사격, 중창 시기 단초되는 유물


함안 강명리 사지서 출토된 통일신라 금동불입상 4구.

함안 강명리 사지서 통일신라 시기의 금동불입상 4구가 출토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함안 강명리 사지(의곡사) 조사성과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8월 30일 함안 강명리 사지에서 개최했다.

함안 강명리 사지는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광려산에 위치한 절터로서 최근까지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었다. 이 절터는 지난해 발굴조사에서 처음으로 '의곡사(義谷寺)' 명 와편과 함께 고려시대 금동불좌상, 건물지, 대형 석축 등이 확인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조사에서도 다단으로 조성된 계단식 석축과 함께 건물지 15동이 추가 확인됐으며, 이와 함께 금동불입상, 불두, 철제 종, 청동소탑편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연구소에서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에 출토됐던 금동불좌상에 이어 추가로 금동불입상 4구가 확인됐다. 이 불상들은 모두 10cm 내외의 소형이며, 상·중·하대 3단으로 구성된 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다.

불상들은 9세기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유행했던 불입상 형식을 대표한다. 경주 안압지·경주 황룡사지·양양 선림원지 등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과도 유사하다.

청동소탑은 수십여 개의 파편으로 출토됐다. 강명리 사지에 출토된 청동소탑편은 신장상(神將像)과 사자상, 풍경(風磬), 계단 등이 세밀하게 표현돼 있으며, 기단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탑과 유사하고 탑신부는 리움미술관 소장 금동탑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외에도 강명리 사지에서는 철제 종, 풍경, 토제 말, 곱새기와, '대부인(大夫人)' 명, '태평(太平)' 명 기와편 등 당시 사격과 중창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함안 강명리 사지(의곡사) 발굴조사는 함안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의 불교문화 연구에 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문화재 지정, 정비, 복원 등이 이뤄진다면 함안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괘불·단청 사용된 전통 안료 '동록' 복원

국립문화재硏, 4년 연구 통해 완성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복원에 성공한 전통 안료 동록.

사찰 건축에서 사용됐던 전통 안료 '동록(銅綠)' 이 복원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목조건축물의 단청, 괘불, 사찰 벽화 등에 녹색 안료로 자주 사용된 인공 무기안료 '동록' 을 전통 제법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전통 인공 무기안료의 재료와 제조기술을 복원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동록은 제법이 단절돼 복원이 어려웠다. '동록' 은 천연 또는 인공적으로 구리가 산화돼 만들어진 녹색 안료로, 전통적으로도 구리 및 구리합금을 인공적으로 부식시킨 후 분말 형태로 제조해 사용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 4년간 동록 안료의 전통 제법을 재현하기 위해 산부식법과 염부식법을 순차적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순수한 구리 및 구리합금 5종의 분말을 원료로 해 염부식법으로 재현한 동록 안료가 실제 문화재 속 고(古)단청의 하엽 색상과 성분이 동일하고 입자 형태도 가장 유사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 단청, 괘불, 사찰 벽화, 조선시대 초상화 등 다양한 채색 문화유산에 높은 비중으로 두루 사용된 안료인 동록의 물질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며 "더불어 단절된 동록 제조기술까지 확보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0

▶ 81회 예고
아쇼까왕은 옛 아반띠국 부왕으로 가는 도중에 꼬삼비에서 우빠굽따 장로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빠굽따는 붓다의 성지를 순례 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순례자 우빠굽따가 아쇼까라마에 와서 또 다시 아쇼까왕을 만난다.



아쇼까, 전륜성왕 되기로 맹세

깔링가국 왕을 처형한 아쇼까왕은 군사들에게 휴식을 주었다. 다야강 강변 임시군막에서 보병들은 잠을 자거나 부러진 장창을 보수했다. 코끼리부대는 회군을 염두에 두고 전투코끼리들을 강변 초지에 방목했다. 기마부대는 다울리 언덕 뒤편 도시 변두리로 나가 포로 15만 명을 감시하면서 휴식했다.

깔링가국 도시의 바이샤나 수드라들은 끄샤뜨리야와 달리 마을에 불을 지르지 않은 아쇼까왕에게 호의적이었다. 아쇼까왕이 '승가의 보호자'이면서 '믿음의 상속자'라는 소문이 돌면서 호감을 갖는 마을주민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깔링가국이 본래 불교신자가 대부분인 나라였으므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들은 마우리아국 백성이 되더라도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 있다며 은근히 안도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다울리 언덕에서 참모와 대장들을 불러 날마다 자축연을 열었다. 언덕 정상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성 안에 깔링가국 왕과 백성들이 예배를 보던 붓다의 나무가 있는 성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붓다의 나무는 나뭇잎이 심장 모양으로 생긴 핍빨라 고목이었다. 3일째 되는 날의 자축연에서는 삿다 장로도 참석했다. 아쇼까왕은 코끼리부대장에게 이동법당 수레를 다울리 언덕까지 끌고 오게 하는 등 삿다 장로에게 정중한 예를 갖추었다.

"삿다 장로시여, 일전에 들었던 수레바퀴 법문을 다시 듣고 싶어 이 자리에 모시었소. 더 긴 법문을 해줄 수 없겠소?"

"대왕님이시여, 사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호위대장이 말했다.

"대왕님, 법문을 듣기 전에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해 보시오."

"이곳에 전차부대까지 왔으면 대왕님의 위엄이 더욱 빛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하다니강을 건널 때 전투코끼리를 타고 넘어질 뻔해서 그런 것이오?"

"아닙니다. 대왕님은 그 어떤 군사보다 코끼리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오?"

"마우리아국 사군(四軍) 모두가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부대를 사랑하는 대장 마음이 느껴지오. 대장은 친위대장이 전차부대를 맡기 전까지 지휘했으니까 말이오."

아쇼까왕은 호위대장의 마음을 이해했다.

"사군 중에서도 전차부대는 대왕님의 권위이자 위엄입니다."

아쇼까왕이 가까운 지방으로 순행할 때는 전차부대가 호위하고 위엄을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우기가 되면 아쇼까왕은 일산을 고정시킨 대왕코끼리를 타지 않고 군마 네 마리가 끄는 전차를 이용했다. 전차는 대가(大駕) 전체가 구리로 된 쇳덩어리였다. 수레바퀴까지 구리로 만들어져 견고했다. 드넓은 초원에서는 수레바퀴가 땅에서 뜬 채로 달려 더 빠른 속도를 냈다. 물론 이와 같은 전차는 잠부띠바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잠부띠바 북쪽 히말라야 설산 너머의 땅인 진나라에도 있었다. 진나라 백성들은 진시황이 타는 전차를 동거마(銅車馬)라고 불렀다. 구조는 아쇼까왕이 타는 전차와 엇비슷했다.

"대장, 전차부대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가 아니겠소? 전차부대가 아니라도 나의 권위와 위엄은 이미 드러났소. 그러니, 삿다 장로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동법당 앞으로 갑시다. 장로시여, 나는 물론 우리 대장들에게 수레바퀴 법문을 다시 해주시오."

"예, 대왕님이시여."

아쇼까왕과 삿다 장로 등은 연회장으로 사용하는 군막에서 나와 이동법당 수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수레 너머에는 작은 고깔처럼 생긴 주황색의 빠또리아 꽃들이 주렁주렁 피어 있었다. 빠또리아 꽃 뒤로는 나무들이 음음했다. 나무 이파리들은 아쇼까왕이 허리에 차고 있다가 마하다니강에서 잃어버렸던 칼 같았다.

이동법당에 오른 삿다 장로가 법문을 시작했다. 아쇼까왕은 일산 아래 코끼리가 조각된 의자에 앉았다. 반면에 대장과 참모, 부관들은 정수리에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삿다 장로를 주시했다.

"대왕님께서는 위대한 사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군을 거느린 대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부릅니다. 사군이란 아시다시피 코끼리부대, 기마부대, 전차부대, 보병부대입니다. 고따마 붓다께서도 사군이 있었습니다. 대왕님께서 사군이 있는 것처럼 고따마 붓다께서는 사성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그것입니다.

붓다께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를 설했을 때의 모습은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사군을 거느리고 적국의 성문 앞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붓다께서 법을 설할 때 제자들은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고 여기어 법륜(法輪)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전륜성왕이라고 부를까요? 왜 '수레바퀴를 굴리는 왕'이라고 하였을까요? 대왕의 수레바퀴는 대왕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대왕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적군이 막지 않거나 막을 수 없다면 적군은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륜성왕의 수레바퀴를 막을 나라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전륜성왕이 막강한 사군을 거느리고 적국의 성문 앞까지 가면 적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붓다께서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왕입니다. 붓다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전륜성왕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듯이 누구도 붓다가 굴리는 담마(법)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붓다의 진리를 아무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붓다께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시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전륜성왕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듯 누구도 아무런 저항 없이 붓다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붓다께서는 〈초전법륜경〉에 나와 있듯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습니다. 그것도 오직 앞으로만 구르는 수레바퀴입니다. 붓다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쎌라여,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수레바퀴를.'

붓다의 수레바퀴는 오직 소나 말의 수레처럼 앞으로만 굴러갑니다. 그래서 고따마 붓다를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수레바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에 실려 있는 가르침입니다. 전륜성왕의 사군은 동서남북의 대륙을 정복합니다.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복합니다. 칼에 피를 묻히면 전륜성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에도 '전륜성왕은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정복하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정법을 사용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에 나와 있듯 적국 왕은 성문을 열어주면서 말합니다.

'대왕이여, 어서 오시오. 대왕이여, 환영합니다. 대왕이여, 모두가 그대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국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왕이여, 교칙을 내려주십시오.'

이때 전륜성왕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라.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지 말라.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 먹기에 적당한 것을 먹어라.'

전륜성왕은 동서남북 세상을 정복하되 붓다의 진리로 정복하는 대왕입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다야강에 칼을 버리시면서 '나는 오늘 이후부터 칼 대신 담마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니라. 담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문이 지금까지 설한 바대로 대왕님께서는 마우리아국 대군 앞에서 전륜성왕이 되기를 맹세하신 것입니다."

삿다 장로가 수레바퀴에 대한 법문을 설하고 나자, 아쇼까왕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장로의 고향이 어디오?"

"사문의 고향은 바로 여기 깔링가국 라트나기리입니다."

"오, 나는 사문의 나라를 정벌하러 왔는데 따라오면서 괴롭지는 않았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께 사문이 나서서 자원했습니다. 사문은 대왕께서 '믿음의 상속자'이시니 마우리아국이든 깔링가국이든 어디를 가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링가국 백성들은 곧 망국의 슬픔을 잊고 대왕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대왕님께서는 칼을 버리고 담마의 대왕인 전륜성왕이 되시기로 맹세했습니다."

"장로의 소원은 무엇이오? 어디에 살고 싶소?"

"아쇼까라마로 돌아가도 좋고, 이곳에 남아 붓다의 가르침 속에 살아도 그만입니다. 사문에게는 붓다의 가르침을 펴는 곳이 고향입니다."

"나는 장로를 돕고 싶소."

"사문이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아쇼까왕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뒤 삿다 장로를 보고 말했다.

"장로께서는 이곳에 남아도 좋다고 했소. 고향이 라트나기리라고 말했소. 아쇼까라마를 지어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 맡겼듯 나는 라트나기리라마를 지어 장로에게 맡기고 싶소."

"사문이 태어난 고향 라트나기리에 사원을 지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깔링가에 붓다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오?"

"고따마 붓다께서는 일찍이 사문의 고향 라트나기리에서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다야기리, 랄리타기리에서 법을 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깔링가 백성들 대분분이 불교신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상속자'로서 반드시 라트나기리와 우다야기리, 랄리타기리를 순례할 것이오. 그리고 내가 다녀간 표시로 탑을 세울 것이오. 장로에게 약속하겠소."

"대왕님이시여, 붓다께서 다녀가신 우다야기리, 랄리타기리에도 사원을 지어주십시오. 우다야기리라마와 랄리타기리라마가 지어진다면 그곳에서도 붓다의 담마 수레바퀴가 힘차게 구를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즉시 호위대장에게 지시했다.

"깔링가 왕실의 모든 창고는 이제 나의 것이 되었소. 그러니 왕실창고들의 모든 식량과 보석들을 꺼내 라트나기리라마, 우다야기리라마, 랄리타기리라마를 짓는데 지원을 아끼지 마시오. 호위대장은 이곳에 남아 세 곳의 사원들이 완공될 때까지 남아서 감독하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병 10만 명을 주어 라트나기리에 주둔하도록 명할 것이오."

"보병 10만 명이면 세 곳의 사원은 2년 안에 완공될 것입니다."

호위대장은 보병을 동원해 3년 동안 아쇼까라마를 지을 때 감독한 경험이 있는 장군이었다. 아쇼까라마를 지을 때도 수십 기의 거대한 가마에 황토벽돌을 구워 사문들의 예배공간인 차이티아(塔院), 거주공간인 비하르(僧院), 사문들의 꾸띠(작은 숙소)들을 수십 채 조성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삿다의 법문을 듣고는 몹시 흡족해했다. 전륜성왕이 어떤 대왕인지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삿다 장로는 즉시 다울리 언덕을 떠나 고향인 라트나기리로 갔다. 라트나기리는 켈루오강 강변 언덕에 있었다. 그런데 삿다 장로가 고향 라트나기리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은 폐촌이 되어 마을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⑰ 당대(唐代) 최고의 역경승(譯經僧), 현장(玄奘)

▶ 한줄 요약
당 태종(이세민) 시대, 불교사에 길이 남을 역경승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법사는 서역으로 구법을 떠나 많은 경전을 가져왔고, 평생 그 경전들을 번역했다.



서역서 求法하고 평생 譯經에 헌신

당(唐) 건립 후 발생한 불도지쟁(佛道之爭)으로 인하여 고조(高祖)가 내린 경사(京師)인 장안(長安)에 다만 3개 사찰에 1천 명의 승려만 남기고, 나머지 사찰은 모두 왕공(王公)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조칙(詔勅)은 이세민(태종太宗, 재위 626~649)이 즉위하면서 대사면(大赦免)을 내려 겨우 폐불의 상황을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법림(法琳) 등의 호법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폐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수대(隋代)의 봉불(奉佛)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까닭도 있고, 다른 측면으로는 바로 태종의 개방적인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태종은 비록 형제를 죽이고 황위에 올랐지만, 통치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이른바 '정관(貞觀)의 치(治)'라고 평가를 받는다. 이 시기에 불교사에 남을 뛰어난 역경승이 출현하였으니, 바로 현장(玄奘, 600~664) 법사이다.

서역에 구법하여 대량의 경전을 구해온 현장은 명대(明代)에 오승은(吳承恩)이 찬술한 소설 〈서유기(西遊記)〉의 주인공인 삼장 법사의 모티브가 되었다. 〈서유기〉는 삼장 법사가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 등과 함께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 다양한 요괴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극과 영화, 만화 등 다양하게 각색되면서 동·서양에 상당히 잘 알려진 인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려 말에 유입되어 유행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한글본이 출현하여 민간에 널리 유통되어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고승이다.

현장의 전기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입적 후 찬술된 거의 모든 승전에 실려 있다. 그러나 입적 후 제자인 혜립(慧立)과 언종(彦悰)에 의하여 편찬된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10권에 현장의 행적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전기에서는 현장의 서역 구법 과정의 일화 등을 서술하고 있어 현장이 찬술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과 함께 당시 서역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역장(譯場)에 참여한 도선(道宣)의 〈속고승전〉 권4에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도선은 〈속고승전〉을 정관(貞觀) 19년(645)에 완성하지만, 현장의 입적(664) 후에 바로 그의 전기를 추보(追補)하였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의 행적과 업적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의 속명은 위(褘)이고, 속성(俗姓)은 진씨(陳氏)이며, 대대로 관료를 맡았던 집안 출신이다. 그렇지만 그의 부친인 진혜(陳惠)는 유학(儒學)에 매료되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집안이 곤궁해졌다고 한다. 현장의 둘째 형인 진소(陳素)가 출가하여 장첩(長捷)의 법명을 받자 현장도 11세(620)에 형을 따라 낙양(洛陽) 정토사(淨土寺)에 머물면서 〈법화경〉과 〈유마경〉을 수학하였고, 13세에 정식으로 출가하였다. 그 후에 〈열반경〉 등을 청강하였는데, 현장은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분석에 있어서 뛰어나 대중들로부터 찬탄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수(隋) 양제(煬帝)의 실정으로 전란과 기근이 들자 현장은 형인 장첩과 함께 장안(長安)의 장엄사(莊嚴寺)로 옮겼지만, 당시 고승들이 촉도(蜀都: 현 成都)에서 경론을 강의한다는 소문을 듣고 촉도로 가서 〈섭론(攝論)〉과 〈잡아비담심론(雜阿毘曇心論)〉 등을 3, 4년간 청강하였다.

당(唐) 고조(高祖) 무덕(武德) 5년(622)에 촉도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무덕 7년(624) 촉도를 떠나 계속 남하하면서 형주(荊州) 천황사(天皇寺)에서 〈섭론〉과 〈잡아비담심론〉 등을 강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승려가 운집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주(趙州)로 가서 도심(道深)으로부터 〈성실론(成實論)〉을 수학하였고, 다시 양주(揚州)로 가서 혜휴(惠休)로부터 〈잡아비담심론〉과 〈섭론〉을 수학하였다.

정관(貞觀) 원년(627), 현장은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고, 도악(道岳), 법상(法常), 승변(僧辯) 등과 〈구사론(俱舍論)〉, 〈섭론〉, 〈열반경〉 등을 연구하였는데, 당시 명성이 널리 퍼져 복야(僕射) 송소우(宋蕭瑀)가 조정에 상소하여 장엄사(莊嚴寺)에 주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장은 그동안 연구한 다양한 경론에 서로 다른 이설(異說)이 있음을 여실하게 느꼈는데, 특히 당시 유행하던 〈섭론〉과 〈지론〉에서 법상(法相)과 관련된 설을 통일시킬 수 없음을 답답하게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삼승의 학설을 모두 종합했다고 알려진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구하고자 인도로 구법할 것을 결심하였다.

13세 때 낙양 정토사서 정식 출가
서역서 경·율·론 657부 가져와
경론·전기 60여 부, 1344권 번역
〈서유기〉 주인공 삼장법사 모티브



대자은사 광장에 있는 현장 스님 동상. 뒤는 현장 스님이 인도서 갖고 온 경전 등을 수장하기 위한 대은탑.

현장은 조정에 정식으로 인도 구법의 허가를 청하는 표(表)를 올렸지만 조정이 허락하지 않자 장안을 떠나 변방에 이르러 서역의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니, 이때가 29세의 일이다. 정관 3년(629)에 흉년이 들자 조정에서는 백성들에게 식량이 있는 곳으로 산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현장은 고장(古藏)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돈황(敦煌)을 거쳐 고창(高昌)에 이르게 되었다. 고창의 국왕은 불법을 신봉하여 현장을 환대하였고, 그의 도움으로 서역에 무사히 이르게 되었고, 서역의 수십 국을 통과하여 마침내 인도에 이르게 되었다.

현장은 마침내 목적으로 하였던 나란타사(那爛陀寺)에 도착하여 계현(戒賢) 법사를 참알하였다. 이로부터 현장은 계현 법사로부터 원래 목적으로 하였던 〈유가사지론〉뿐만 아니라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순정리론(順正理論)〉, 〈인명론(因明論)〉,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중론(中論)〉, 〈백론(百論)〉, 〈구사론〉 등을 학습하였고, 나아가 바라문교의 〈성명기론(聲明記論)〉까지도 학습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인도의 고승들과 다양한 논쟁에 참여한 기록들이 보이는데, 논쟁에서 항상 현장의 견해에 승복하였다고 한다.

현장이 인도로부터 돌아와 장안에 도착한 때가 정관 19년(645) 정월이니, 처음 고장으로 출발한 지 17년 만의 일이다. 이 17년은 가히 목숨을 건 여정이었지만, 원래 현장이 목적한 바를 만족할 만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경·율·론은 657부(部)에 달한다고 한다. 서역으로 갈 때는 홀로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귀국할 때는 태종이 그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려 곳곳에서 호위를 받으며 이른바 금의환향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장안에 도착한 이후 현장은 낙양으로 가서 태종을 만났는데, 태종은 서역과 관련된 저술을 부탁하였으며, 환속하여 관직을 맡으라고 권하였지만, 현장은 사양하였으며, 태종은 장안 홍법사(弘法寺)에 역장(譯場)을 차리게 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였고, 전국의 이십여 고승을 소집하여 역경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런데 태종이 이처럼 현장을 환영하고 역경에 도움을 준 것은 그가 불법에 귀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당시 황권은 고조로부터 친 도교적인 성향이었고, 태종 역시 불교를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태종이 현장을 중시한 것은 서역 정벌에 필요한 정보와 불교의 교세를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태종의 개방적인 종교정책에 따라 유·불·도 삼교가 정립(鼎立)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불교에서는 다양한 종파가 활발하게 성립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현장은 태종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인도와 서역으로부터 가져온 경·율·론을 번역할 수 있게 되었다. 19년(645) 5월에 〈보살장(菩薩藏)〉 등의 번역을 시작하였으며, 다음 해에 태종이 요구한 〈대당서역기〉 12권을 완성하였고, 정관 22년(648)에는 〈유가사지론〉 100권을 완성하였다. 그로부터 가져온 수많은 경론을 번역하였으며, 현경(顯慶) 4년(659)에는 옥화궁(玉華宮)으로 옮겨 다음 해 〈대반야경(大般若經)〉을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용삭(龍朔) 3년(663)에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의 번역을 마친 후에 스스로 체력이 다했음을 알고 번역을 중단하였으며, 인덕(麟德) 원년(664) 초에 병환이 심해져 2월 5일 중야(中夜)에 세수 62세로 입적하였다.

현장이 입적할 때까지 역장에 참여한 도선의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에는 현장이 번역한 경론과 전기가 60여 부, 1344 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경론과 전기 등이 모두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성유식론(成唯識論)〉으로부터 바로 법상유식종(法相唯識宗) 혹은 자은종(慈恩宗)이라고 칭하는 종파를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종파는 제자인 규기(窺基) 이후에 단절되는데, 그 원인을 흔히 인도의 농후한 사변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여 중국인들에게 맞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장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과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범어로 번역하여 오천축국(五天竺國)에 두루 배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도선의 〈속고승전〉에서는 현장의 입적을 아쉬워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말과 범어에 모두 능하고, 범문(梵文)의 핵심을 교묘하게 달통하며, 국풍(國風)을 이끌어 사도(邪道)와 정도(正道)를 가르쳐 깨닫게 한 사람을 꼽는다면, 현장 법사보다 공덕이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일은 서역으로부터 가지고 온 경부(經部) 가운데 아직 번역하지 못한 것이 절반이 넘게 남아 있고, 나이가 아직 말년에 이르지 않아 이를 세상에 내놓을 수도 있었는데, 무상(無常)이 갑자기 닥치니, 애석하구나!"

마지막까지 현장의 역장에서 함께 했던 도선의 평가는 가슴에 깊게 와 닿는다. 서역과 인도의 구법 17년, 총 만리(萬里)에 달하는 역정, 거쳐 간 나라가 138개국, 중국에 돌아와 19년의 역경과 찬술은 바로 현장 법사가 우리에게 남긴 법은(法恩)의 소재(所在)라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 인 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연암 현응 대화상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 (055)934-3000 Fax 934-3010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⑰ 둔황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도〉

▶ 한줄 요약
당이 패망한 뒤 송이 들어서기 까지 50년동안 오대십국 시기를 거친다. 혼란의 시기에도 불교문화는 꽃을 피웠으니, 둔황 막고굴 제61굴 등이 조성됐다. 제61굴에는 부처님의 영취산 설법을 도상화한 〈법화경변상〉이 조성됐다.



혼돈 시기 피어난 '명작' 영취산 설법도

한 번 이룩된 문화는 비록 그것이 기인하는 왕조가 사라져도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강성하던 당 왕조도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세력을 잃게 된다. 907년 당나라가 망하고 959년 송(宋)이 들어서서 중국을 다시 통일하기까지 50여 년간을 중국 역사에서 '오대 시기'라고 부른다. 오대십국(五代十國)이 분열과 할거를 거듭하던 혼돈의 시기였지만 당대에 이룩된 찬란한 문화는 그 세력을 잃지 않고 계속 펼쳐졌다. 이 시기에 제작된 둔황 막고굴 제61굴(이하 61굴)의 〈법화경변상도〉를 통해서 당시의 불교문화 예술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후당(後唐)의 장종(莊宗)은 과주(瓜州, 감숙성 안서현)와 사주(沙州, 감숙성 돈황현) 지역을 할거하고 있던 조의금(曹議金)을 사주자사(沙州刺史), 귀의군절도사(歸義軍節度使) 등의 지위를 부여해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 조 씨 일가에 의해 여러 새로운 석굴 사원이 개착됐다. 조의금은 제98굴을 그의 아들 조원덕(曹元德)은 제100굴을, 세 번째로 귀의군절도사에 등극한 조원심(曹元深)은 제256굴을 만드는 등 유례없이 큰 규모의 석굴들이 연달아 조성됐다. 그 뒤를 이은 조원충은 30여 년에 달하는 통치 기간 동안(945~974) 제55굴을 비롯해 제25·53·269·469굴 등을 발원하고, 둔황에서 멀지 않은 안서(安西) 유림굴(榆林窟)에도 석굴사원을 조영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화(佛畵)와 판화, 사경(寫經) 등도 발원하였는데, 장경동(藏經洞)에서 발견된 돈황유서(敦煌遺書) 가운데에 그 일부가 전하고 있다.

제61굴은 규모나 구조면에서 조원충이 발원한 제55굴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두 굴 모두 작은 전실(前室)과 짧은 복도, 그리고 광대한 규모의 주실(主室)로 이뤄져 있다. 현재 전실은 무너져 짧은 복도를 통해서 바로 주실로 들어갈 수 있게 조성됐다. 굴 안으로 들어가면 눈앞에는 바로 큰 단이 펼쳐지고, 주위의 벽은 다양한 벽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좌우 벽 상부에는 각종 경전을 도해한 〈경변상도(經變相圖)〉가, 그 아래에는 48명이나 되는 공양인(供養人)의 모습이 빼곡이 그려져 있다. 공양인들 앞에는 방제(旁題)가 있어 각각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제61굴은 10세기 전반, 조원충의 부인인 적씨(翟氏)가 시주해 만든 굴이다.(그림①)

굴 가운데에 큰 불단을 두고 불단 뒤쪽으로 천정까지 닿는 높은 배병(背屛)을 설치하는 방식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석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른 굴과 차별되는 제61굴만의 특징은 바로 배병 측벽에 그려진 벽화이다.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法華經變相)〉의 형성과 발전은 앞서 살펴보았던 일련의 〈정토경변상〉과 시기적으로는 궤를 같이한다. 마치 남인도의 아마라바티 스투파에 설법부조와 같이 제61굴 〈법화경변상〉은 서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요잡(繞匝)을 행하던 신자들이 경전의 내용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좌우 측벽에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① 오대에 조성된 둔황 막고굴 제61굴 굴실 내부.

당 패망 후 50년 오대십국 시기
혼란기에도 불교문화는 꽃 피워
둔황 제61굴 석실 〈법화경변상〉
법화경 가르침 상세하게 도상화

제61굴 〈법화경변상〉은 형식적으로는 정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기 〈정토변상〉과 같이 새로운 도상을 창출하기보다는 주악이나 무용 장면을 좀 더 강조하여 화면 하단에 삽입하는 등 정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에 화면을 구성하는 〈법화경〉 경전의 내용들 사이에 유기적 구성이 더욱 치밀해졌다. 오대(五代, 907~960)에 제작된 막고굴 61굴 남벽의 〈법화경변상〉은 이처럼 정형화된 변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먼저 화면의 중앙을 살펴보면, 중앙의 큰 아치 모양의 반원형 내에는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그 주위에는 보살 및 호법신장, 그리고 사부대중이 설법회에 참석하였다. 석가모니 삼존불 뒤에는 우뚝 솟은 산세가 이어져 이것이 산상설법(山上說法), 즉 영취산 설법임을 알려준다. 영취산 설법회 장면 바로 아래에는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돌아누우신 가운데 침상 왼쪽에서 불을 지펴 화장을 준비하고, 주위에는 제자들이 오열하며 비통해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는 지난 연재의 〈열반경변상도〉 장면을 차용해 〈방편품(方便品)〉을 묘사한 것이다. 즉, 여래가 화장되고 입멸하신 그 열반의 순간 또한 방편의 일환임을 경(經)에서는 밝히고 있다.



그림② 둔황 막고굴 제61굴 남벽 동측에 있는 〈법화경변상〉

그렇다면, 이 방편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경전에서 제시하는 것은 '법화칠유(法華七喩)'로 대표된다. 제61굴 〈법화경변상〉에서는 이와 관련한 도상들을 화면 하반부에 배치했다. 먼저 〈방편품〉을 나타내는 〈열반도〉 바로 아래에는 〈비유품〉의 장면이 묘사됐다. 향우(左)측 에는 △〈신해품(信解品; 가난한 아들의 비유)〉 △〈양초유품(藥草喩品)〉 △〈화성유품(化城喩品)〉과, 그 향좌(右)측에는 △〈안락행품(安樂行品; 전륜성왕 머리 속의 보배구슬 비유)〉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양의양약의 비유)〉의 내용을 묘사했다. 이러한 비유들은 여래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달리해 제도하심을 설명하는 것을 도해한 것이다.

그러면 제61굴 〈법화경변상〉 그림 속에서는 중생을 위해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 진리의 경계는 무엇일까? 중앙의 영취산 설법회 바로 위에는 중국의 목조 전각 형식과 유사한 도상이 눈에 띈다. 탑 내부에는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설법을 나누고, 시방세계에서 여러 불·보살들이 법회에 참석하고자 찾아와 두 여래의 설법을 듣는 장면이다. 이것이 이른바 '허공회'를 표현한 것으로, 이 장면은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으로 다보여래가 석가모니불의 〈법화경〉 설법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장면이다. 〈법화경〉은 '견보탑품'을 기점으로 설법의 무대와 내용이 전환된다.

경의 후반부는 줄곧 땅에서 500유순이나 솟아오른 칠보탑 안에서 석가·다보 여래가 함께하는 '허공회' 설법이며, 방편이 아닌 대승설법의 교의를 직접적으로 설한다. 이때 깨달은 자로서 불타의 존재는 〈법화경〉을 매개로 영속적이고 두루한 법신으로 회향한다. 이것은 화면에서 정확히 석가모니 영취산 설법회 하단에 배치된 '방편품'의 내용, 즉 화장되고 소멸될 불타의 몸이라는 관념과 대치하고 있다.

제61굴 〈법화경변상〉 화면에는 영취산 석가모니 설법회를 이루는 반원형 경계의 외연을 따라 무수한 보살들이 구름을 타고 상승하고 있다. 우선 반원형 경계의 향 우(左)측 하단을 살펴보면, 세 개의 봉우리로 표현된 산지로부터 몸을 반쯤 드러낸 보살들의 행렬이 시작된다. 다시 향 좌(右)측 하단을 보면, 녹색 수면으로부터 보살들이 구름을 타고 솟아오르고 모습이다. 이 구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며, 각각의 무량한 시간을 거쳐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의 〈법화경〉 설법을 수지해 온 무수한 보살들이 땅(종지용출품)과 바다(제바달다품)에서 용출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성불을 수기받은 자이자 법신, 즉 〈법화경〉을 수지, 호념, 홍포, 설법할 주체로서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그 순간이다.(그림②)

화면의 상단부에서 '허공회'의 주변 공간들은 곧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찬양하고, 〈법화경〉을 호념하고 설법하는 보살들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온갖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중생의 불성을 일깨우고(상불경보살품), 〈법화경〉의 수지 및 설법을 맹세하며(권지품), 〈법화경〉의 홍포를 독려하며(수희공덕품),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들을 수호한다.(다라니품, 관세음보살품, 약왕보살본사품, 묘장엄왕본사품 등)

이와 같은 제61굴 〈법화경변상〉의 구성은 중앙의 축을 따라 배치된 견보탑품·종지용출품·제바달다품·서품·방편품·비유품 등은 중당(中唐, 781~848) 이후 점차 정형화됐다. 물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경전의 내용을 치열하게 참구(參究)와 고민을 거쳐서 제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의 정형화가 이루어진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는 혹자의 말대로 '예술적 창의성 저하'로 보기보다는 당시 막고굴 조각상과 벽화의 봉안 방식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막고굴은 수·당대부터 조각상과 벽화가 혼합된 양상으로 봉안됐다. 이것은 사찰 법당으로 생각하면 중심 예불대상으로서 우선 조각상을 봉안하고, 다음 회화는 공간적 제약상 조각상으로 봉안하지 못하는 다른 존상들을 마치 조각상을 대신하듯이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드물게는 정벽 감실에 조각상을 배경으로 묘사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석굴안에 봉안된 다른 〈정토변상〉과 같이 설법회 장면을 묘사한 도상의 영향을 받아 시각적 통일성 및 벽화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봉안됐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법화경〉에서 설파하는 방편바라밀과 지견바라밀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경전 내용은 제61굴 〈법화경변상〉에서 더욱 더 함축적으로 구현해 내었을 뿐 아니라,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재구성됐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회주 금산도영 총무 화평 사회 우림
주지 월강일원 기획 광진 포교 제환
부주지 시산원혜 교무 석초 호법 덕림
재무 여찬
17교구 사부대중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갤러리 리유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반야스터디 카페
- 담마 북까페
주지 경우
사부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Monthly Bultube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클릭하고, 응원이나 감사의 내용을 댓글로 남기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은 불교와 사회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사찰로 찾아오는 불교에서 사회로 찾아가는 불교로의 변화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불교 포교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불튜브에서는 다양한 피드백이 이뤄진 불교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설

우학스님의 생활법문 '단문단답'
'줄 끊어진 염주 어떻게?'
youtu.be/9jChvGygrIs

SCAN ME

유튜브를 통해 불자들과 소통하는 스님 중 으뜸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일 것이다.

한국불교대학 무일선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불교대학은 구독자 13여만 명의 불교 강좌채널이다. 회주 우학 스님은 매주 생활법문을 유튜브로 전하며 법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단문단답을 진행하고 있다. 질문이 있는 이들이 댓글이나 편지로 스님에게 물어보면 그 다음 법문에 이어 답변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이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불교 콘텐츠를 업로드 일자 검색시 우학 스님의 영상으로 사실상 도배하다시피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영상 구독자들과 소통을 많이 한다는 반증이다.

8월 21일 업로드 된 단문단답 116편에서는 '법당 안에서 꼭 지켜야 할 예절, 공덕 지으려다 악업 짓는 일이 된다'와 '줄이 끊어진 염주는 다시 쓰면 안된다' '새집 안택기도 하는 법' 등이 소개됐다. 조회수는 30347회로 좋아요는 무려 5200여회가, 댓글도 917개가 달렸다.

8월 13일 업로드된 단문단답 113편에서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내요. 어떻게 고칠까요?' '금강경 독송을 매일하는데 뜻을 몰라도 공덕이 될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 물리치는 기도법' 등이 설해졌고, 조회수는 24175회, 좋아요는 4400여회, 댓글은 830개가 달렸다.

김홍희 씨는 "사람 마음이 내 질문은 앞서 중복이거니 생각하면 참 편할 건데 채택이 안 되면 삐지고 서운해합니다. 이건 오백살이 된다고 해도 같을 것 같습니다. 스님 법문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오기도 가기도 합니다"라고 영상 소감을 남겼다.



강설

5분 뚝딱철학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youtu.be/LYNqergVWUc

SCAN ME

5분 뚝딱 철학은 철학, 심리학 등을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이다. 2년 동안 매주 1편씩 올리고 있는데, 철학의 넓고 어려운 주제들을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본명은 김필영,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대를 졸업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박사이며 논리학을 강의했다. 2020년 12월에는 유튜브 제목과 같은 책 〈5분 뚝딱 철학:생각의 역사〉를 출간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시간과 주제 순서대로 정리하여 설명해주는 책이다. 이후 2권도 출간했다.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 서양철학이다 보니 동양철학을 다루는 영상을 원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를 수용하여 2022년 7월부터 동양철학은 손미애 전북대 교수가 담당하는 2인체제로 바뀌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은 '동시성 현상과 홀로그램 우주이론'의 내용을 보완하고 음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동시성 현상에 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관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관점 그리고 불교의 화엄 사상의 관점을 설명한다.

8월 29일 업로드된 이 영상의 조회수는 23779회로 좋아요는 1200여회, 댓글은 142개가 달렸다. '동시성 체험이라는 개인의 신비한 체험에서 시작해 양자역학을 통해 물질적으로, 불교의 화엄사상으로 형이상학적으로까지 확장되다니 논문을 한편 본 듯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삶 속 일들이 불교사상과 양자역학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5분 뚝딱철학에서는 불교의 무아와 연기설을 흄과 러셀 등 서양철학의 입장에서 해석한 영상 등도 업로드된 바 있다.



강설

자현 스님의 불교공부
'내가 명상을 시작한 이유'
youtube.com/shorts/JtjsMKd63io?feature=share

SCAN ME

스님 중 6개 박사학위로 국내 최다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자현 스님은 최근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비교적 짧은 쇼츠 콘텐츠로 불자들을 만나고 있다. '자현 스님의 쏘댕기기' 유튜브 채널은 평균 조회가 6~8만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스님은 이외에도 '자현 스님의 불교공부' 등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현 스님의 불교공부는 불교를 중심으로 동양학 등 인문학 전반을 다루는 채널이다. 매주 일요일 8시에는 교리천재 강좌가, 수요일 8시에는 불교특강이 진행되며 이 강좌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또 네이버 밴드 '쏘댕기기'(band.us/@kumarajiva)를 통해서도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자현 스님의 불교공부' 쇼츠 영상 중 '머리를 좋게 만드는 명상'에서 스님은 "저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아니다. 제가 게으르고 머리가 안된다. 저도 놀랍다"며 "책에도 썼지만 명상을 하게 된 계기가 '공부를 못해서'다. 머리를 좀 좋게 해보자는 생각에 명상을 시작했다. 분명한 것은 기억력이 늘어나는 것 보다 창의력과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짧은 영상이지만 조회수는 8만회에 좋아요는 2300여회가 눌려졌다. 댓글로는 '7번째 박사학위도 기다리고 응원합니다' 등이 달렸다.



뉴스

MBC 뉴스투데이
'부처님 위 케이블카 재수없다' 현수막 논란
youtu.be/YCPzITw7lBQ

SCAN ME

8월 23일 MBC뉴스투데이에서 보도한 사천 대방사의 케이블카 반대 현수막 시위에 대한 뉴스영상이 조회수 40만회가 넘을 정도로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과 초양섬, 각산을 오가는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바다 위로 국내 최대 거리인 2.43km를 자랑한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각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면 사찰 지붕 위에 대형 현수막 2개가 보인다.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없다'는 글귀가 선명하다.

케이블카는 사찰 오른쪽 상공을 오가는데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채까지는 직선거리로 80여 m, 수행공간까지는 100여 m 떨어져 있다.

사찰 측은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7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신청했지만 패소했다. 2019년엔 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소음 상한인 55DB를 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자, 항의 차원에서 현수막을 붙인 것이다.

사천 대방사 도안 스님은 "사천시에서 어떤 사과나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주지와 한마디 상의가 없다. 대응 조치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는 법적 판결도 나온 만큼 조정이나 피해 보상은 힘들다는 사천시 입장과 사찰 측이 사천시청 앞 1인 시위까지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무려 3588개 댓글이 달렸다. 한 시민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 남의 불편을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뉴스

SBS 알고보면
'비에 젖지 않는 불상 미스터리'
youtu.be/rqm_Mk2S42A

SCAN ME

SBS 생활정보 전문 유튜브 채널인 '알고보면'에서는 8월 27일 '30년째 한결같이 깨끗한 얼굴, 비에 젖지 않는 불상 미스터리'라는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했다. 430640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자랑하는 이 영상에서는 충남 논산 쌍계사 관세음보살존상에 대해 다룬다.

쌍계사 주지 선석 스님은 "습해지면 이끼가 껴야 하는데 불상 안면에만 이끼가 끼지 않는 것은 신비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옥수 석공예 명장은 "화강암은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는데, 입자가 고운 곳은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빨아들인다"며 "얼굴이 다른 부위에 비해 훨씬 곱게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곱게 연마된 불상 안면부 쪽으로 바람 통풍이 잘 되는 것도 비밀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석공의 불심이 정성으로 조각하게 됐고, 저런 신비한 결과까지 이어졌다"며 "저 석공을 불교계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시민들은 "스펀지도 아니고 돌일 뿐인데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30년 세월에도 저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면 이 또한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댓글을 남겼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벽암 지홍

신도회장 정광자 김희남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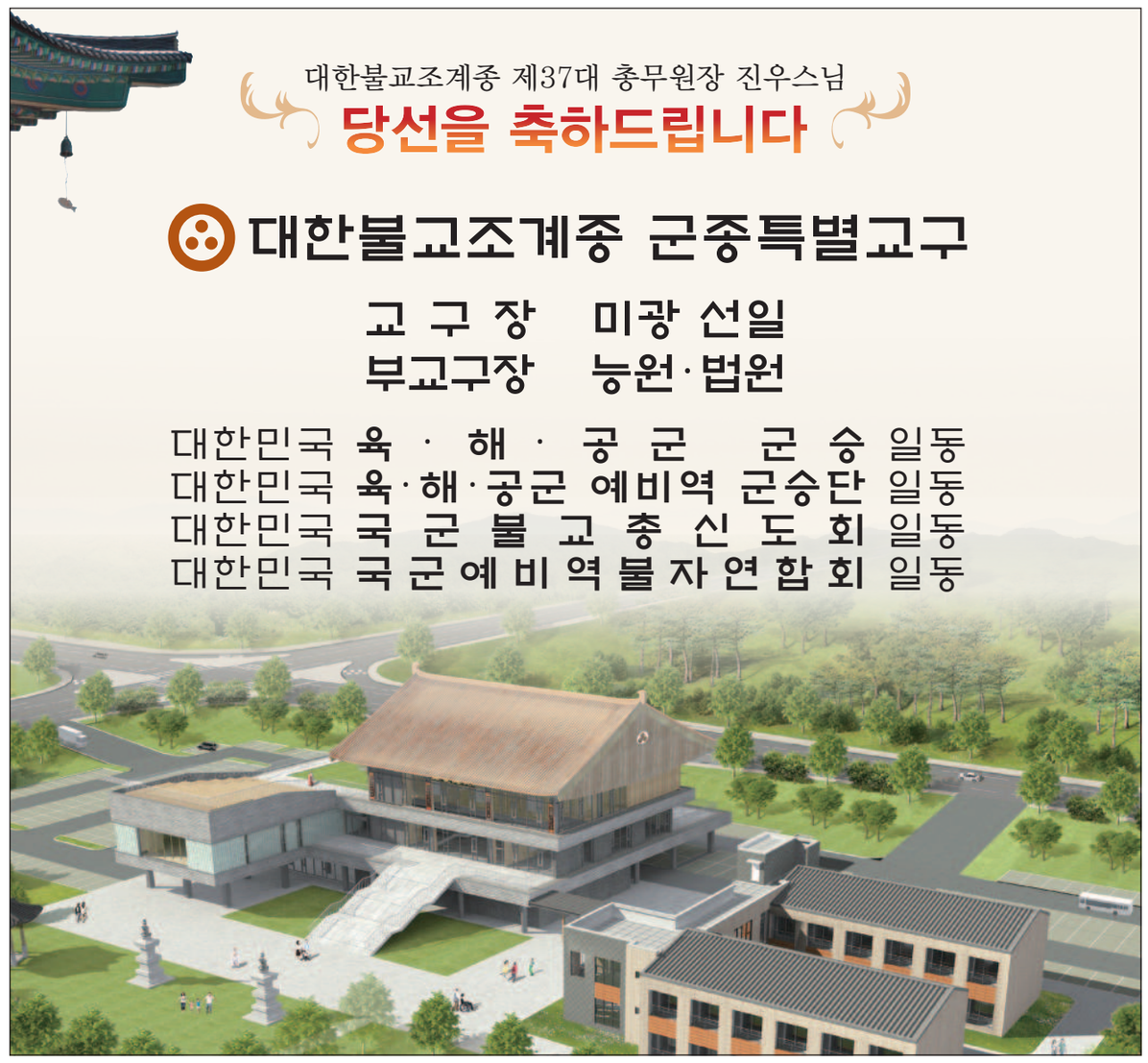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

법회일 YouTube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진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2동 341-2)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 구 장 미광 선일
부교구장 능원·법원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일동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군승단 일동
대한민국 국군불교총신도회 일동
대한민국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일동

번뇌있기에 깨달음도 있는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㉝ 대승도(大乘道)

〈원문〉 "만약 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따라 믿고,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진 사람은 밝은 믿음을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따르고 최후의 완성된 경지를 얻게 되느니라. 법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갖춰진 근(根)과 뜻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경계를 관찰하며, 업을 지어 과보(果報) 받는 것을 관찰하며, 아라한의 무명의 잠(眠)을 관찰하며, 마음이 자재한 즐거움과 선정의 즐거움을 관찰하며, 아라한·벽지불·대력(大力)보살들의 성스럽고 자재한 신통을 관찰하느니라.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공교로운 관찰을 성취하고 내가 멸도한 뒤 다음 세상에서 나의 제자가 따라 믿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 밝은 믿음을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따르면, 성품이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물들었다 해도 최후의 완성된 경지(究竟)를 얻게 되느니라. 이 최후의 완성된 경지라는 것은 대승도(大乘道)에 들어가는 원인이니, 여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큰 이익이 있어서 깊고 깊은 이치를 비방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강설〉 불교는 중생의 미혹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 계·정·혜 삼학(三學)에서도 혜학이 불교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성취가 곧 불법의 성취이다. 이 장에서는 법의 지혜를 따르며 최후의 완성된 경지를 얻은 사람이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밝혀 놓았다. 믿음이 더욱 깊어져 법의 지혜를 따라 최후의 완성된 경지인 대승도에 들어간다 하였다. 대승(大乘)은 제일승(第一乘)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부파불교의 한계와 폐단을 불식하고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불교를 흥기시킨 후 이전의 가르침과 구별하여, 보다 뛰어난 가르침이란 뜻에서 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에서는 중관과 유식이 일어나고 그 후 밀교로 이어져 대승이 선양되었고, 중국에 와서는 많은 종파가 형성되면서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선종, 정토종을 포함한 중국에서 일어난 13종이 모두 대승이었다. 〈승만경〉에서도 〈화엄경〉, 〈법화경〉과 마찬가지로 극구 대승을 찬양하고 권장하고 있다. 세 경전에서 모두 성문, 연각 이승들은 대승을 모른다고 수행의 정도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대승경전의 결집에 대해서 〈지도론〉에서는 전설적인 설화로 기술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문수와 미륵 같은 대보살들이 아난과 더불어 대승경전을 결집했는데 성문들이 대승의 가르침을 들으면 혼란만 일으키고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영축산에서 소승삼장을 결집할 때에 아난이 대승을 송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승의 특징은 다불신앙(多佛信仰), 법공사상(法空思想), 보살도(菩薩道)로 요약된다.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 소승이 증득하지 못했다는 제법이 모두 공하다는 법공을 강조하며 이타원력을 가진 보살의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보았다.

경의 본문에서 번뇌에 물든 마음이 결국 최후의 완성된 경지의 수행을 이룬 그 마음이라는 말을 하였다. 대승에서는 번뇌를 무조건 끊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굳이 말하자면 이용할 대상으로 본다. 〈유마경〉에서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구할 수 없듯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비유가 나온다. 번뇌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말이다. 선가에서 말하는 번뇌가 곧 보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신심이 깊어지고 마음이 더욱 밝아지면 그 속에 일체 불법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로 번뇌에 물들어도 깨달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의 본문 가운데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것을 관찰하는 등 다섯 가지 관찰을 예시했는데 이는 마음을 관찰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인과법을 관찰하고 수행이 관심(觀心)으로 깊어짐을 나타내는 말이다. 달마대사가 남긴 말에도 '마음을 관찰하는 한 법이 모든 수행의 중심'이라 하여 '觀心一法이 總攝諸行'이라 하였다. 또 이심수심(以心修心)이라 하여 마음으로써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보조국사의 수심결(修心訣)에도 말하고 있다. 마음이 마음을 닦는 비결(祕訣)이라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전도몽상 깨뜨리고 진여본성 깨달아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㊻ 마음의 평화와 자유 얻기 위한 수행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불자 여러분! 진여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스로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는 따로 부처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유식학(唯識學)에서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법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구(經句)는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는 진실한 마음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마음이 창조해 내는 유심(唯心)의 세계이며 마음 밖에 따로 특별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一切唯心造 心外無別法]"라고 마음 밖에는 한 법도 없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음을 믿지 않고 100년도 견디기 어려운 몸뚱이를 믿고 삽니다.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때가 되면 인간은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이 몸을 버리고 떠나가야만 됩니다. 윤회 속에서 아무리 좋은 몸을 갖고 왔을지라도 떠나 갈 때는 목석(木石) 버리듯 몸뚱이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와는 달리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끝없는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속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본질을 바로 깨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꿈속에서 꿈을 꾸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 같은 마음이 감춰져 있다고 해서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과 생멸하는 중생심이 함께 갖춰진 이중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진여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별망상하는 생멸심을 멈추고 헐떡이는 마음을 내면으로 되돌려 마음의 본질을 직관(直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멸하는 중생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을 회복하여 우주 속에 대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심 이전의 마음은 이미 부처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오염되기 이전에는 이미 부처입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구름 위의 청정한 하늘은 전혀 때가 묻지 않는 하늘인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비록 온갖 번뇌 망상으로 뒤 덥혀있지만 진여본성은 전혀 물듦이 없이 반야지혜를 반짝이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 진여본성은 한 번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행을 통해서 전도몽상의 마음을 깨뜨리고 진여본성을 깨달아야만 대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청정한 하늘을 만나려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속을 찾아들어가야 하듯이 내 마음 속의 진여본성을 찾으려면 생멸하는 중생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진여본성은 중생심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담긴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물이 맑아지듯이 내면에서 요동치는 분별망상을 멈추고 마음을 관조(觀照)하게 되면 생멸하는 마음 그 밑바닥에 본래 평등한 불생불멸의 진여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㉝ 학인의 경 1

스스로 알아차림 없는 알아차림

"아난다여, 까뻴라밧투의 싸끼야족들에게 학인으로서 길을 가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는 등이 불편하여 쉬려고 한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큰 옷을 네 겹으로 깔고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깊이 새겨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우셨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다 보면, 부처님의 몸을 언급한 것에 대해 들을 때가 있다. 〈금강경〉에는 탁발에서 돌아와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과정이 있고, "나는 등이 불편하여 쉬려고 한다"고도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수행자들은 조금의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소리와 형상이 아닌 그것도 부처님의 몸을 떠나 있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참 법문을 스스럼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러주신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미 있는 말씀은 쉽게 알아지겠지만, 이런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등이 불편하여 쉬려고 한다." 생로병사를 완전히 뛰어넘은 분이 등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신다. 가르침을 직설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나는'이라고 지칭하는 말의 핵심을 바르게 간파하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놓쳐 버리게 된다.

'나도' 지금까지 연재하면서 '나'라는 언어를 배제하면서 글을 적고 있다. 눈치 있는 분이라면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나'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가르침에서 이 언어를 사용하려면, '투명유리' 밖의 대화인 줄 알아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

만약 유리 안의 소리로 듣는다면 가르침을 전달함에 있어 마지막 소리를 오해하여 듣게 될 것이다. 유리 밖 '나'의 지칭은 인연으로 있는 것에 대한 지칭이다. 그 인연의 진짜 모양이 있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것으로서 지칭되어지는 것이다. 지칭하는 바 없는 '나'를 지칭하고, 또 그렇게 듣는 것은 앎이 온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깊이 새겨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우셨다.", '자고 일어나는 것'을 수행으로 알기도 어렵다. 눈을 뜨고 있을 때와 달리 잠자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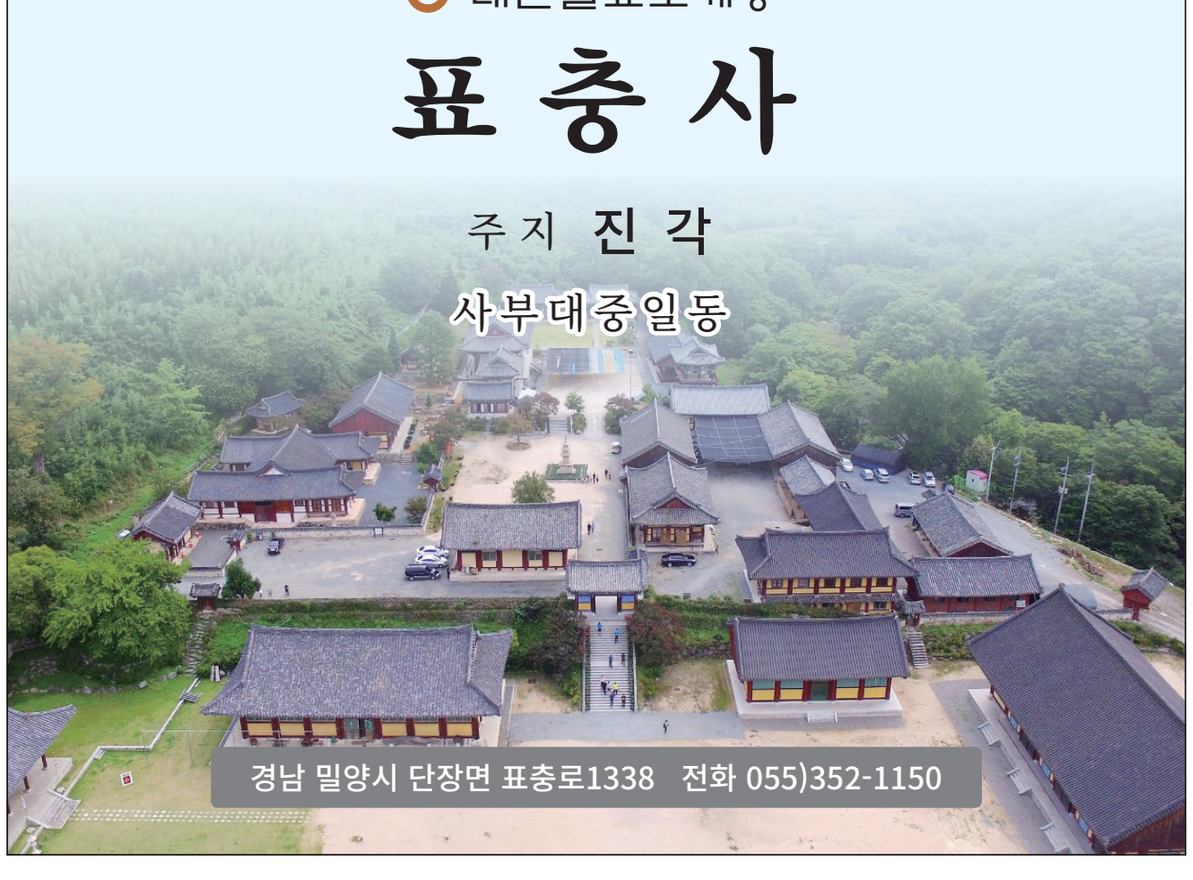
왜냐하면, 수행하다보면 몸이 지치고 나서야 잠이 들기 때문에, 피곤함으로 바로 누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잠자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도 잘못하게 된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바르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수행하고 있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눈을 감고 뜨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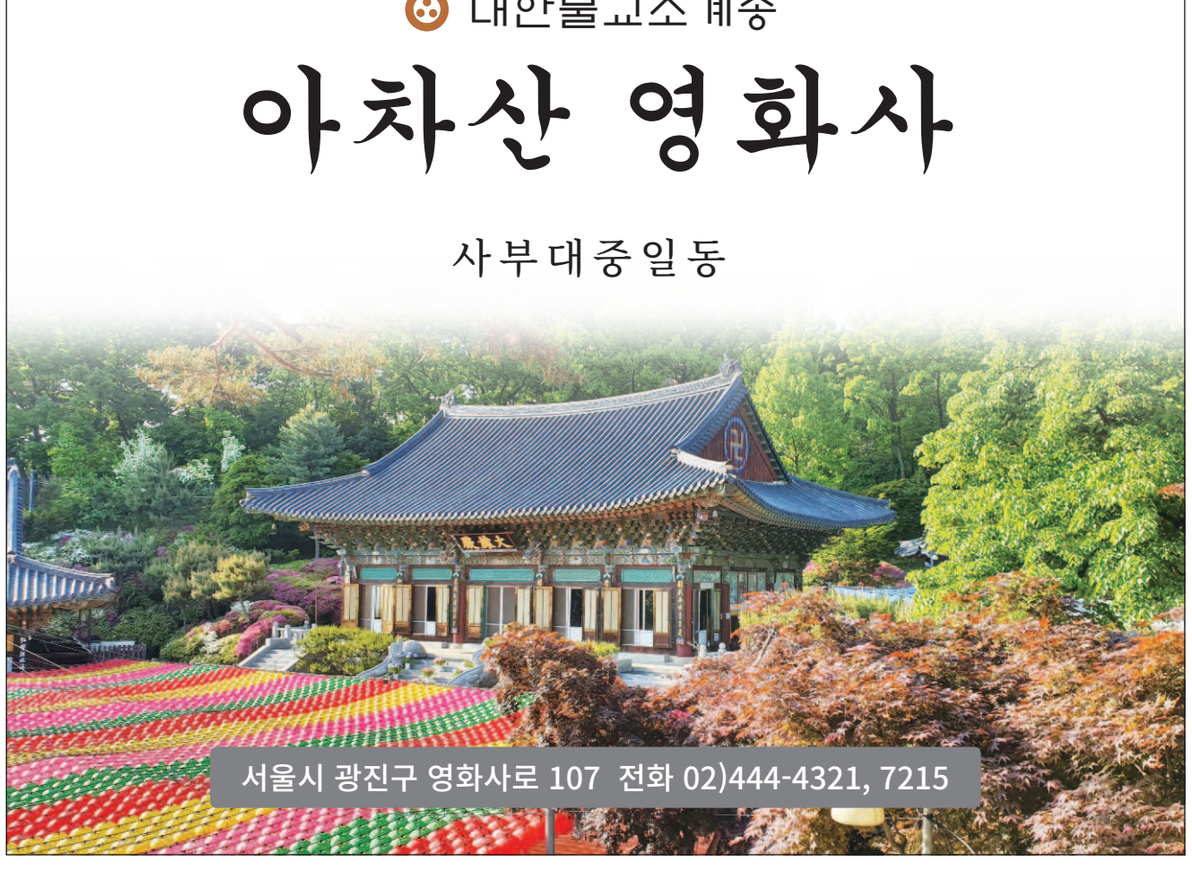
이 몸과 같이 수행할 때, 자고 일어나는 일을 철저히 신경 썼던 기억이 있다. 자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자 한 것은 '나'에 대한 연속성 때문이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화두가 끊어짐이 생기지 않았는데, 눈을 감고 잠을 자면 화두가 끊어져버렸다. 거기에 의문이 생겨 어떻게 잠을 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그러다 잠을 '내'가 자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아는 때에 이르니, 화두를 들고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화두가 그대로 들리게 되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생겼다. 그 때부터 화두는 저절로 들리게 된 것이다.

'깊이 새겨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우셨다'는 가르침은 몸으로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알아차림이며, 몸으로 일어나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스스로의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우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는 항상하여 알아차림 없이 항상 알아차려져 있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 충 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전화 02)444-4321, 7215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02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무료 교육과 상담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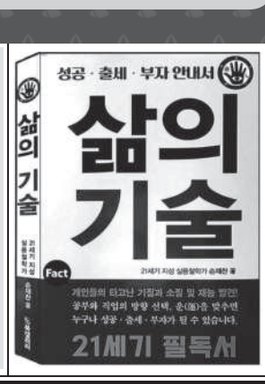
의처증과 의부증, 악몽 빙의,
모든 신경성 질환에서 오는 여러 증상,
질병치유 심리학, 한의학과 철학,
정확한 원인 분석 치유, 부부문제 전문 상담

문자 010-4078-7810

효사연락

010-5962-4600

효사비결
CD프로그램
교환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010-5049-1533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0-3807-0040

사찰음식점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청주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010-5883-2255
010-7921-2255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전수비 300만원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우리함께" 부처님 공부하면서 살아갑시다

- 남은 생을 절에서 살아가실 분(부부 환영)
- 장기간 집중기도 하실 분
- 장기요양 하실 분 • 출가 하실 분
- 주지스님 공양주겸 시봉하실 분
- 출가한 스님으로서 절을 운영하실 스님
- 끝까지 주지스님과 같이 수행하실 스님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선에 있는 절로써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 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처 010-8945-1424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영험약수"로 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법정사
지평 대종사 : 033-33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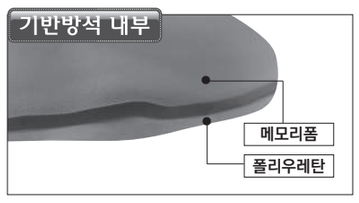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2호 | 18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전국 사찰 양도 접수 받습니다.

사찰 양도를 결정하셨다면
저희 다래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신속하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및 상세내용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안내가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공기 맑고 아늑한 절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지 : 90평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388평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가액 : 3억7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남향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가액 : 11억원

010-5309-9117

멋진사찰(급급)안내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대지 : 약 173평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요사채 : 1동 약23평, 1동 약 25평, 2층 약6평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포 교 원 안 내

●경남 밀양시, 5층중에 2층, 70평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무료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거리, 사주 하시는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해드리겠습니다.
●보5백만원, 월43만원, 시설비4천5백만원

010-9424-4777

양평, 임야 안내

●서울에서 1시간 거리(동남향)
●약 2,200평(계획관리+보존임야)
●명상과 더불어 조용한 전원생활
●향후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투자성이 매우 좋은 저렴한 땅(평당 : 13만원)

주인직접 010-2215-3657

사찰(급)안내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대지 600평, 건물, 법당, 탑, 산신각, 미륵불, 요사채 2동
●스님 노환으로 급양도 합니다
●시내와 인접해 있습니다
●가액은 상담후 결정

010-2366-2821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암 자 안 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대지102평, 2층 법당 15평, 1층 생활관 34평
●가액 : 9천5백만원

010-4156-377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 (150m)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도시가스, 난방,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보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9231-6825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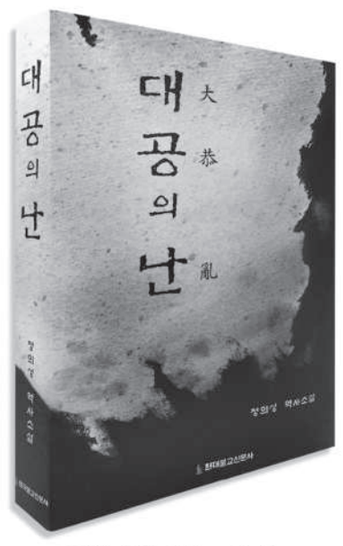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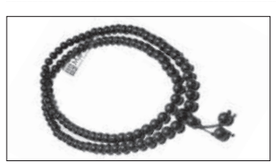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⑯ 차를 우리기 전에 할 일 4

차를 대하는 일, 사람을 대하는 일

제5식, 양성(養成)

기초 차식 중에서 양성은 찻잎과 따뜻한 물이 처음으로 만나는 차식으로 차를 우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대지의 기운을 받고 자란 찻잎은 물과 만난 한 잔의 차로 재탄생한다. 자연의 영양분으로 자란 차가 우리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결합하여야한다. 찻잎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마른 나뭇잎에 지나지 않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우려내기 위해 차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물의 온도나 우리는 시간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한다.

물의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는 것은 본래 차의 성정과 성분을 발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차의 향과 성분을 변화시키며 너무 오랜 시간 차를 우린다면 쓰고 떫은 맛을 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녹차는 곡우를 기점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아주 여린 잎이라서 80~85℃ 정도의 물로 녹차를 우린다. 너무 뜨거운 물에 차를 우리게 되면 비타민 성분이 많이 파괴되고 카페인과 타닌 성분이 많이 우러난다. 백차는 90℃, 청차와 황차는 80~90℃, 보이차와 같은 흑차는 100℃에서 차를 우린다.



차의 종류. 물의 온도. 우리는 시간. 차를 마시는 사람의 기호 등을 잘 살펴서 찻자리에 모인 사람의 분위와 기호에 따라 향기로운 차를 우려야 한다. 차를 잘 우려내는 일도 중정법이며 중도법을 잘 지키는 일이 차사의 수행이며 행다수행법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차 한 잔을 우리고 대접하는 일이 쉽다면 쉽지만 한 잔의 차를 우리는 일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마신다면 스스로를 자양하며 세상과 사람을 크게 공경하는 일이며 자연의 은혜에 감사함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를 우릴 때 찻잎이 뜨거운 물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러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비로소 색 · 향 · 미가 완벽하게 조화된 차를 얻을 수 있다.

제6식, 신수(身受)

기초 차식의 제6식 '신수' 는 차가 우려진 다음 손님에게 권하기에 앞서 우린 사람이 먼저 차의 맛을 보는 것을 말한다. 손님에게 권하기에 앞서 우린 사람이 먼저 차의 맛과 향 그리고 차의 풍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 실천하는 자세를 중시하기 때문에 먼저 차의 맛을 본 후 제대로 차가 우려졌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에게 차를 권할 수 있다. 만약 차의 맛이나 향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차를 우리더라도 절대로 차맛이 완성되지 않는 차를 권하지 않는다. 우려진 차 맛이 쓴지, 단지, 차 기운이 충만한지, 향기가 원만한지, 맛이 풍부한지, 밋밋한지, 차를 우리는 사람이 직접 맛을 보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도는 이론상의 도가 아닌, 실천의 덕목이며, 차인이라면 누구라도 평생토록 연마하고 실천하고 연구해야 한다.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이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남을 대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역시 내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매사에 역지사지의 자세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비추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이를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자신의 독립된 인격체가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노자는 "내 몸이 아픈 것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내가 좋아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 갓난아기 때부터 점차 성장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면서 자아는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지며 자신만이 독점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한다, 그러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타인의 상황과 감정은 보이지 않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는 험담과 유언비어까지도 퍼트린다. 이러한 행동과 말은 자신과 상관없이 타인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는 듯해도 결국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차를 남에게 판매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손에 들어온 차, 자기 가게의 차가 최고라고 주장하며 남의 가게의 차를 폄하하기도 한다. 누구나 맛있는 차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기에 내가 인정할 만한 차맛을 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하였으니 자기가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마시지 않게 하는 것이 차인의 도리일 것이다. 이를 실천하면 차의 아름다움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를 마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다애인(情茶愛人)' 의 뜻이다. 또한 인생의 긴 고해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일이 차를 채취하고 만들고 우려 사람을 대하고 스스로를 수신하는 과정과 같다. 항상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을 성심껏 대한다면 스스로의 인생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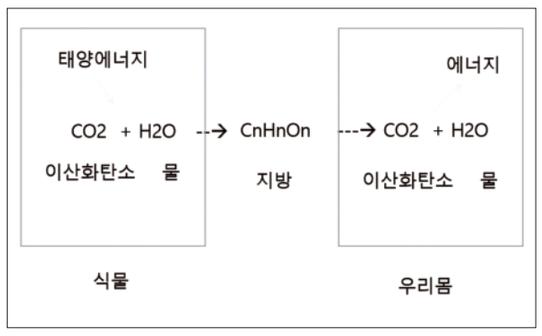
박주용의
소금&건강
⑯ 다이어트와 미네랄

다이어트 시 필수 영양물질 계속 섭취해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살을 빼려고 노력한다. 살아가면서 다이어트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산업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 몸은 수분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살' 이라고 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요약된다. 물론 단백질도 수많은 형태가 있고, 지방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 형태가 다양하다.

살을 뺀다고 하면 먼저 지방을 떠올린다. 단백질도 한몫 한다. 지방은 원소 기호로는 CnHnOn 즉 여러 개의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체이다. 이는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변신을 거듭하여 우리 몸에 '지방' 이라는 형태의 살로 저장된 것이다. 이는 우리 몸이 저장해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언제든 에너지가 필요로 하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막에 사는 낙타는 등에 혹을 달고 있다. 그 혹 속에는 다름 아닌 지방이 가득 들어 있다. 낙타는 그로 인해 한 달 동안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혹 속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낙타에게서는 혹의 모양이 홀쭉하고 쭈글쭈글 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인류가 과잉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을 지방으로 저축을 하는 이유도 먹을 것이 없는 때를 대비한 것이다. 원시시대 불규칙한 음식 조달은 풍족할 때 과잉으로 먹어 부족할 때를 대비하고자 하는 지방축적의 유전자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것이 인류의 번성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 소비 없이 축적만 하다 보니 비만이 되고 건강이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탄소동화작용 이화작용 –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

수분과 미네랄 부족하면 건강 이상
소금 · 미네랄 · 비타민 늘 섭취해야

지방은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산화탄소와 수분으로 분해되어서 원래의 자연 상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방이 사라지고 살이 빠지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축적된 이들 영양물질 즉 살을 에너지화해서 사용해 버리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사용하는 그것보다 적은 영양분을 섭취할 때 다이어트 효과가 달성된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사용하고 동시에 그 에너지가 되는 영양분을 사용분보다 적게 섭취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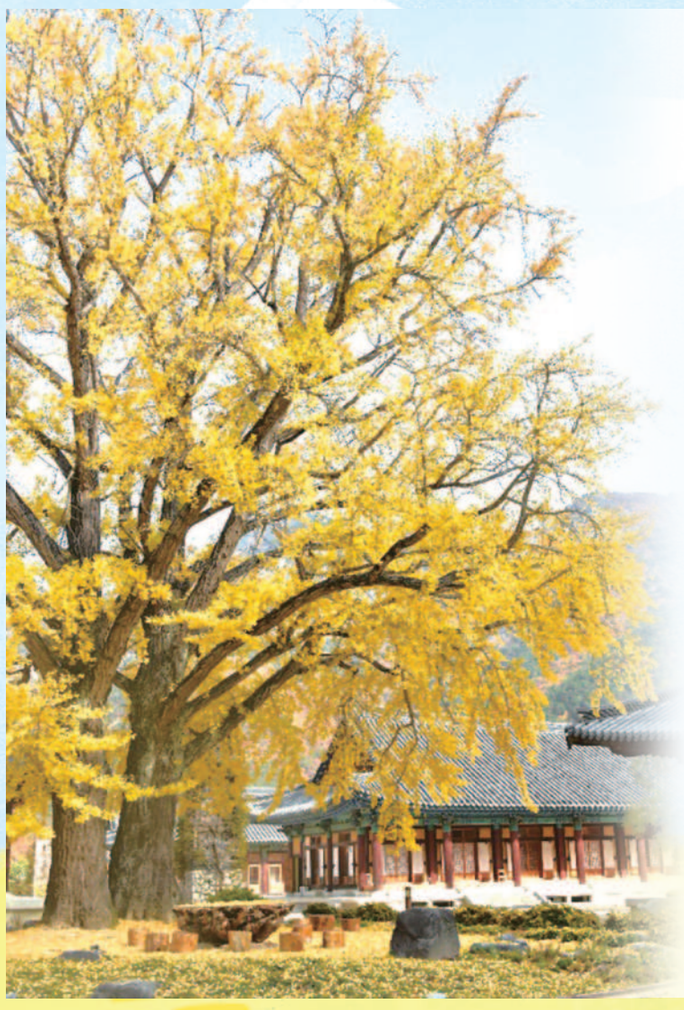
운동하고 활동을 하여 우리 몸의 살을 에너지화해서 써버려야 한다. 단순하게 땀을 흘리는 일은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는 하지만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은 줄지라도 엄밀하게 살이 빠지는 행위는 아니다. 살을 빼는 것은 활동량을 늘리면서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운동하고 덜 먹으면 되는 것일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2가지다. 운동하는 것은 살을 빼는 것도 있지만 균형 있게 빼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몸은 필수 영양물질을 끊임없이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운동이나 활동을 해서 사라지게 해야 하고 적게 먹어도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수분과 미네랄 비타민은 다르다. 이들을 적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겨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과거 선원들이 배를 오랫동안 탈 때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해 비타민 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걸렸던 시절이 있었다. 고기 등으로 풍족한 식사를 했지만, 비타민 부족으로 질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 미네랄 부족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몸은 수 십 가지의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 몇 가지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은 망가지고 질병에 걸린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이들 성분은 반드시 섭취를 해주어야 한다.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수분, 미네랄, 비타민,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 물질이다. 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필수 생존 물질인 것이다. 미네랄에는 소금이 당연하게 포함된다. 다이어트의 실패는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굶으면서 하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이어트를 중단을 하면 금방 요요가 오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몸은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 부족해진 수분,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고자 하는 몸의 욕구가 강해져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 살이 찌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급기야 운동이 아닌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는 다이어트로 흘러가게 되어 돈도 낭비하고, 몸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이지,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다. 다이어트는 몸의 건강을 찾아가는 일이지, 몸을 학대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소금, 미네랄,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한시도 부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나오는 다이어트 제품을 보면 이런 점에 착안하여 미네랄 소금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다이어트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출발점은 소금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알고 고르게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오씨아드 이사〉



제 51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귀의삼보 하옵고,

안타까움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온갖 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운문 도량으로 각처에서 수행정진하고 계시는 동문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부디 함께 하시어, 소중한 인연과 추억의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 일시 : 불기 2566(2022)년 9월 20일(음력 8월25일) 오후 2시
- 장소 : 운문사 선열당
- 안건 : 동문회 임원 선출 건 /
  장학금 전달(필히 본인 참석)
  모교발전과 기타 여러 가지 안건
- 문의 : 054)372-8800 (운문사종무소)/(총동문회연락처) 총무 석운스님 010-3576-7952
  재무 홍제스님 010-7145-1454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지호 합장

마음책 다시 읽기 스님의 그림자 ❷ 깨어나 그림자 껴안기

▶ 한줄 요약
타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들 때 스스로를 반추해보라.

부정적 인식, '스스로의 그림자'서 비롯



예비적인 수행으로서의 심리치료

교육 분석을 받을 때부터 스님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 출가수행 생활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지, 어째서 여전히 편안하지 않은지 궁금했다.

깨닫기 위해 출가해서 수행하지만 세속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어 자비보다는 무자비에 가까운 모습, 지혜보다는 무지(無智)에 가까운 언행 등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뭐지?', '왜?' 라는 의문이 들었다. '왜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스님들은 관세음보살처럼 따뜻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줄 알았다.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스님들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란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의문은 자아초월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해되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40~50여 년 전부터 영적 스승들의 다양한 이상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켄 윌버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그것은 '그림자' 문제다. 그림자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다루지 않고 방치하면, 일반 사람들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성장이 지체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잭 콘필드(Jack Kornfield)는 〈깨달음 후 빨랫감〉이나 〈마음의 숲을 거닐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림자 문제를 잘 다루는 분야는 서구의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이다. 그래서 영적 수행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심리치료는 영적 수행에서 예비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나와 내 주변의 수행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명상과 심리치료는 각각 공헌점과 제한점이 있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뭐 저런 게 중을 한다고!

이즈음에서 나의 그림자 하나를 공유하고 싶다. 스님들은 세속의 나이와 상관없이 누가 먼저 출가했는지에 따라 그리고 누가 먼저 정식 스님이 되었느냐에 따라 위계가 정해진다.

그 스님은 나보다 속가 나이는 어렸으나 먼저 출가한 선배였다. 그분의 평상시 말씨는 평이했으나, 어른스님 앞에선 어리광부리듯 혀 짧은 발음을 냈다. 어른스님은 사랑스럽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어와 차이가 컸기 때문에 나는 신경에 거슬렸다.

그래서 은근히 그 스님을 무시하며 속으로 비난했다. '뭐 저런 게 중을 한다고!' 이런 마음 상태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집단미술치료를 하면서 알아차렸다. 혀 짧은 어리광스런 발음은 원래 나의 특기였다는 것을! 나는 가족 누구나 인정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늦은 나이에 막내를 두었기 때문인지, 막내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병이 시작돼서인지, 언니들 말처럼 내가 귀여워서였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집안에 감도는 긴장과 불안감을 전환시키기 위해 어린 내가 자처한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중에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애교를 부렸을 수도 있다.

중학생 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는 점잖은 어른처럼 보였다. 어리광부리던 내 행동은 일순간 멈췄다. 그런 말씨를 사용하는 게 창피했다. 그렇게 갑자기 그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졸가 후 그 스님의 어리광스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나도 모르게 불편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중단되었던 나의 모습이, 그 스님의 모습에서 보였던 거다. 어리광스러운 모습에 용납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내 모습이 투사되었던 것이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불편함은 나의 몫이고, 그녀의 것은 그녀의 몫이다.

이런 자각이 생기자 그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멀리서나마 그 스님을 향해 참회의 절을 올렸다. 그 후에도 그분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이상한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대중에서 생활하면서 자꾸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 보고, 자신의 내면을 먼저 탐색하는 것이 낫다. 성장기에 겪었던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들, 자신이 감당 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은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되거나 방치된다. 억압되고 소외된 것은 힘이 있다. 이 에너지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대상을 달리해서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일으킨다. 보통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중생활에서 누군가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꼴 보기 싫은 그 모습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보고 싶지 않은 측면인지 모른다.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이 보기 싫게 된다.

'저 스님이 왜 저럴까' 의문점
'자신의 그림자'인걸 깨달아야
'마음 내려놓기'의 수행 필요

애초에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억압한 것이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불편한 모습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그만한 맥락이 있다. 이상한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 자극, 환경, 조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타인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고 다시 보면, 한없는 자비와 연민이 솟아난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관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준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와 심리학은 둘 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자신의 내면(내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잡고 있던 것을 놓아 버리고 싶다면 자신의 내면(마음)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의식(무의식)에 있다 보니, 자기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정견(正見), 즉 올바로(정확히) 보기가 어렵다.

보통의 경우, 고집멸도를 바르게 아는 성제를 것을 '정견(正見)'이라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친다면 단어나 개념에 갇혀서 정작 탐색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놓치게 된다. 심리학에서 정견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 내면에 쌓인(集;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의 덩어리) 것이나 억압된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억압이 많을수록 완고해지고 고집이 생긴다. 반면, 쌓인 것이 남아 있지 않으면, 거슬리지 않고 유연하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울 때 아이들은 우는 것으로 표현한다.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울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는 동안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 개입되어 갑자기 울기를 멈출 수 있다. 울기 경험을 40% 하고 60%가 남아있을 때, 남아 있는 감정의 찌꺼기인 60%는 쌓인다. 이것은 무의식에 억압되고, 무의식 속에 퇴적된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한다. 쌓인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프로그램처럼 작동된다. 온전히 경험되지 않은 무의식적의 퇴적물은 계속 나오고 반복되며 패턴이 된다. 이것을 충전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불교의 표현을 빌리면, 쌓인 것이 많을수록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쌓여 있는지 자신의 마음 안을 탐색하는 것이 놓아 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부할 때 책이 교과서가 되듯이, 수행할 때는 자기 자신의 내면이 교과서가 된다. 내면을 보기 위해서 명상할 때, 처음에는 눈을 뜨는 것보다 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눈을 감으면 자신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보면(자각하면, 알아차리고 체험하면, 경험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오신채에 난 짜증

박사과정 때 나는 두 곳에서 일하면서 수학(修學)했다. 달마학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서울의료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소임이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것과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것이 유용했다.

낮엔 병원 법당에서 환우나 불자들을 만났고, 오후나 저녁에는 센터에서 업무를 보거나 청소년 상담을 했다. 학교와 일터는 서울의 양 끝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멀었다.

가장 바쁜 시기여서 마치 마라토너처럼 질주하듯 살았다. 밤낮으로 종종거리며 일하고 공부하며 논문을 준비했다. 그런 어느 날, 알고 지내던 한 스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성장 과정에서 양육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분이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공유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을 땐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신채' (대승불교에서 먹지 못하는 다섯 가지 채소, 마늘 · 파 · 부추 · 달래 · 아위의 다섯 가지로, 대부분 자극이 강하고 냄새가 많은 것이 특징)를 못 먹는다"고 딴죽을 걸었다. '그럼, 예전에 먹었던 건 뭐지!' 이런 의문은 한편에 두었다. 좋은 스님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을까!

오랜만에 만났으니 잘 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바빴기 때문에 살짝 짜증이 났다. 소형 냉장고 안에는 아침을 준비할 충분한 채소가 없었다. 나는 사찰 요리하듯이 정성을 쏟을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했다. 그러나 최대한 공들여 1시간 동안 준비했다.

아침 공양을 하면서 "스님, 음식에서 자유로워지고 나면 오세요"라고 한마디 말해 버렸다! 그때 조금 참을 걸! 그 후로 그녀는 연락하지 않는다. 내 말이 상처가 된 것이 자명했다.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을 품을 마음의 작은 공간도 없었고, 내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랐다. 그래서 종종 상처를 주곤 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오래되었지만, 나는 가끔 그때 생각이 났다. '이것과 관련된 나의 상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 투정하는 사람들이 싫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지? 그건 바로 내 아버지였다!' 몸이 허약하고 아파서였을까! 아버지는 밥상에 고기반찬이 없으면 반찬을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늘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했다. 그때는 그것이 싫고 무서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리치료나 상담이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될수록 나는 편안해 졌다. 스스로 느낀 변화는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것뿐만 아니라 몸이 이완됐다는 사실이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온 몸에 힘을 주고 산 듯하다. 여러분도 몸의 힘 빼기 연습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저자 : 효록 스님(운주사)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대행 스님

일체 뿌리가 한 뿌리라면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질문자1(여) 스님, 저는 진주에서 왔습니다. 한마음선원을 알기 13년 전에 남편이 양다리 수술을 받고 큰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가 6명이고 대학생이 지금 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합천 상가에서 살았을 때, 465평이라는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22년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애들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제가 지금 너무 그 논을 못 팔아서…, 이런 말씀 스님께 드리기 죄송합니다.

큰스님 어떠한 길이든지 가지 못할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몸 안의 그 모든 업식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입력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 업식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것을 거기다 되입력을 하시라구요. 되입력을 하시면 새 입력이 들어가서 새 물이 나와서 새 물을 먹게 되니까, 앞서의 그 모든 업식의 고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모든 거를 거기다가 진짜로 믿고 놓으세요.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 놔야 그 모두가 원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업식 자체가 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면서 모두 공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못 할 일이 없어요.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는 나가서 조절을 하고, 안으로는 바로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는 그러한 법이 되니까요. 그게 행이에요, 법행!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댁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같이 한마음으로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질문자1(여)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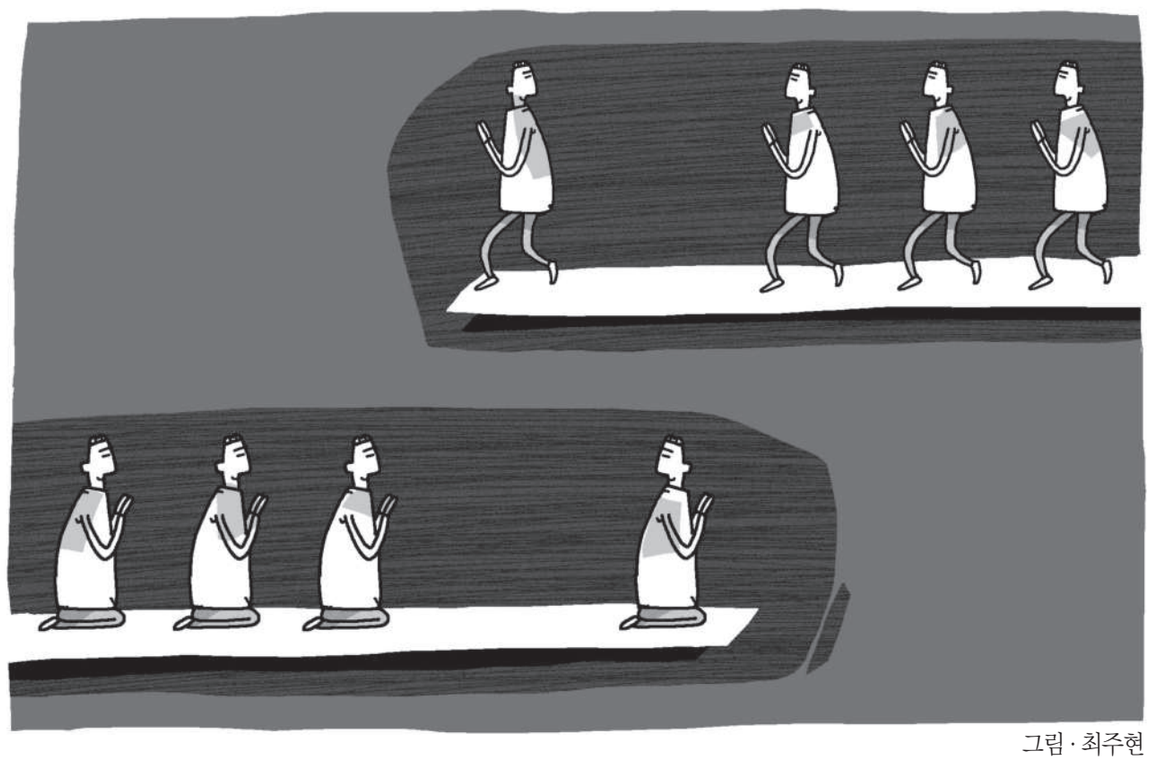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남)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한 8개월 전부터 별다른 이유를 모르게 목이 돌아가면서 막 뒤틀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밀검사나 여러 가지 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해 보자 해서 해 봤는데,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계속 심해지면서 자꾸 뒤틀어지는데, 스님께서 마음 좀 내 주십시오.

큰스님 날더러 마음을 내 달라기 이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몸속의 그 생명들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온 업식들입니다.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그 생명들이 인연이 돼서 모두 합쳐진 한 몸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식에서 나오는 야릇한 증세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 알겠지.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이 모든 게, 그 다섯 가지 종류의 오신통이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아.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는 겁니다. 되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솔이나 수세미 이런 걸 파는, 아주 오래 여기 다니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니죠. 그런데 다니기 전에 고개가 그렇게 학생처럼 돌아가질 않아서 왔어요. 그때 내가 상원사에 내려와서 신도 집 여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절을 하는데 말이오, 얼마나 극진히 삼배를 하는지 남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내가 볼 때에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저렇게 극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처님도 안 모셔 놓고 그 방석,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절하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진짜로 믿고 그냥 삼배를 극진히 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저렇게 믿고 삼배를 올리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받으신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극진한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한데 이어진 거예요. 동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목이 그냥 풀렸대요. 가다가 말입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러니 그것이 도깨비장난 같고 요술쟁이 같고 하지만, 우리가 전부 요술쟁이고 도깨비장난이고 탤런트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모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을 각자 띄워 놓은 것과 같아요.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치면 '아이고, 살려 달라' 고 뭐, 아우성을 치게 되죠. 학생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죠. 지금 고개가 안 돌아가니까 파도가 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다 해야 하느냐? 아주 일어서서 나 죽는다고 살려 달라고 바깥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고, 선장더러 하는 소립니다. '선장! 이 배를 가는 곳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믿어서 거기에 한마음으로 뭉칠 때, 가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그 목도 파도가 치다가 선장이 잘 이끌어 가고 그런다면 파도가 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파도친다고 해서 제각기 일어나서 우왕좌왕한다면 배는 뒤집히고 말죠. 영영 고치지 못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겁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내 몸뚱이를 끌고 가는 선장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진짜로, 마음이 묘한 거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진짜로 믿고. 그리고 자주 와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고개가 왜 삐뚤어지겠소? 허허허. 그게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들어 있어서….

질문자3(남) 저는 부산 법형제 심등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심을 하면서 일체 만물이 스승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 법형제회도 지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 개의 신행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큰스님께서 내외적으로 더욱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큰 마음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나한테 내 달라기보다도요, 이거 보세요. 모두 내 주인공의 한마음을, 한 뿌리를 믿고 맡겨 놓으세요. 일체 뿌리가 한 뿌리라면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일체 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에 찰나찰나 나투시니 바로 한마음에 계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일체 선장의 마음은 한마음이다.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당신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화목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조절을 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자생 중생들을 화하게 해서 보살로 응신이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시면 일체가 모두 들립니다.

질문자3(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닌 필연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10개월 전에 부산 모 체육관에 가서 관장님한테 운동을 좀 배울 거라고 서울로 오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내려와서 직접 지도를 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하면 "그건 뭐, 우연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필연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옆에 앉아서 옛날에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할 때에 전화가 와서 받으면 그 친구가 목소리를 전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장모님이 마산에 가셔서 처자식을 놔두고 혼자 오기가 좀 마음이 꺼림칙했는데 밤에 와서 전화를 해 보니까 장모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 참 묘하구나!' 했는데 스님 말씀대로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실감 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보아 넘길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처 외숙모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 22면으로 계속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다놔야다얻을수있고다얻을수있어야다줄수있다

☞ 21면에서 계속

해 있습니다. 집에서는 사실상 손을 전혀 못 쓰는 상태인데 제가 결혼을 할 때 그 얘길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히 흘려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외숙모 딸 되는 분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더 내 가지고, 처 외숙모 얼굴도 모르지만 한번 공부를 시켜 볼까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로서는 교회 다니는 그 처제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큰스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기독교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출현을 했으니까 나부터 있는 겁니다. 나부터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 주처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밖의 하나님 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主)는 반드시 나의 근본, 마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그 하나의 근본으로 인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바로 당체라는 말입니다, 천체. 그러니까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불'은 천체 생명이요, '교'는 전체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처는 처제 가슴에 있소.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가슴에 있는 거니까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요."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일러 주고 아픈 사람도 그렇게 관하게끔 일러 주세요.

기독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살리려면, 기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이런 사소한 건으로 부담을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한마음이라고 해야죠. 하나로 돌아가요. 지구촌의 모두가 지구를 타고 하나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갈라져서 돌아가지 않죠? 하하하.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라도 주처는 너의 가슴에 있으니까, 그 가슴 깊이 들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말고 안으로다가 '주님, 당신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찾으라고 일러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모두가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인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므로 거짓도 없고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자기가 뿌려 놓고 자기가 기르고 또 거두고 이러는 거지 '우연히'가 어딨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3(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회에 참석할 때마다 자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 몸에, 글쎄,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겠는데 전율을 느낀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큰스님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나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전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전체 돌아가고 전체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진리를 담은 바로 살아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으려고 장치를 해 놨는데, 그 장치에 태양열이 받아졌을 때, 그 받아진 자체를 갖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전력으로 쓰려고 아주 강한 믿음을 진실하게 가졌을 때 그 전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율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전율이 오는 경우 혹시나 남이 볼 때에 누가 될 것 같으면, '전율 대신에 뜻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내면 컴퓨터를 누른 거와 같아서, 전율이 남 보기에 누가 되지 않게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대로 응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세요.

질문자3(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의식, 영혼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늘 사용은 하고 있지만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몸 안에 천차만별로, 가지각색으로 용도에 따라 구별이 된 의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으로 말입니다. 또는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은 무엇이냐?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그렇게 의식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능력만 배출해 줄 수 있는 심봉과 같은 근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 그거는 부동합니다.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봉이죠.

그러니까 그 심봉에게 전부 맡기면, 돌아가면서 그 심봉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입력됐던 것이 심봉에 의해서 모두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는 마음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믿고 행을 해야, 그게 체험도 되고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알게 되고 나, 참나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자꾸자꾸 놓고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력하는 것은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바꿔 쓰는 거죠. 언짢은 건 바꿔 쓰고 좋은 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다 보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로 돌아가는 한 혹성의 별성들 전체가 은하계처럼 내 몸뚱이 속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지 모든 것을 선장의 그 심봉한테 맡기면…, 즉 말하자면 선장이란 이름해서 선장이지 자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진아(眞我)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 모든 것을 선장의 그 심봉한테 일임하세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같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 부동한 선장한테 다 일임해 놓으면 내 심상대로, 생각한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컴퓨터를 누르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러 드리면 잘 아시겠죠? 허허허….

질문자3(남) 큰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자4(여) 큰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올라온 신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 경험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 12월 초쯤 됐는데요. 제가 여성 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처사하고 둘이 집에 들어가면서 가게 문을 열어 놓고 들어갔어요. 홀딱 열어 놓고, 그것도 셔터 문도 올린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 완전히 열어 놓고 둘이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이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차를 타고 휙, 문 열어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저희 집 처사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뒤에 앉아서 저녁 늦게 아이들이 공부 다 하고 들어갈 때까지 늘 관을 하면서 수행을 해 왔어요. 그날 저녁에도 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제 그 마음자리에서인지 그때는 그것도 잘 모를 때였는데요, '무엇을 관하고 앉았느냐. 네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그런 생각을 안 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날까?' 하다가 저희 집 처사가 주방에서 따로 관을 하다가 들어왔길래 아니, 이상하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하는 게 느껴진다고 그랬더니 "둘로 보지 마라."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걸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상하게 얘길 했더니 "그럼 주인공하고 대화를 한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히죽이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셔터 문이 활짝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도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까지도 다 열려 있고. 아, 너무 놀라서 둘이서 막 뒤져 보고 금고도 열어 보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신문 세 부가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 처사 첫마디가 "주인공, 밤새도록 지키느라고 애썼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제 자신이 느꼈어요.

그 이후부터 정말 진정한 공부로 들어간 건지, 작은 체험뿐 아니라 이러저러한 체험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넉넉한 거는 없어도 마음들은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 인정해 주고 아껴 주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공부가 잘된다고 신나라 했거든요.

또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생활처럼 늘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생활을 위해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어느 사인가 모르게 제가 수행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수행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나한테는 문제가 될 게 없다.'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데,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늘 눈만 뜨면 듣고 잠자기 직전까지 관하면서도 듣고, 관 안 할 땐 안 하는 대로 또 듣고 일을 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 나왔는데, 요 근래에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뭔가 모르게 아주 묘하게 터득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자꾸 와서 닿는데 그게 잘 안되고, 그거를 자꾸 터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답답하고 머리도 무겁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진실하게 그것조차도 그 자리에 맡겨야만 순리대로 이게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거기에 자꾸….

큰스님 다 놔야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야 다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명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문을 열어 놓고 자기도 하고, 때로는 잠가야 할 때는 안 잠그고 또 잠그지 않아야 할 때는 잠그고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이거를 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말이, '네가 나를 지켜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막힌 자기의 보배입니까? 자기 앞에 보배를 두고 딴 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자기 불성인 뿌리죠. 그 뿌리만이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일러 주기도 하고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런 거지, 댁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죠. 하하하.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밉다 잘못한다 하더라도, 급할 때는 당기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거기만을 의지하고 거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면, 진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9월 4일 법형제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2·720·9600 maumtour.com

한국인을 위한 2022년도 항공좌석 관계로 9월 20일 마감입니다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왕궁 앞에 있는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법회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최 | 여수 석천사 진옥(061-662-1607)
문의 및 접수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법회 동참 일정 (상세한 일정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A 팀 달라이라마 법문 8일(11월 22일 출발 -29일 도착)
(동참금 2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11월 22일 인천-델리-암리차르 / 23일 암리차르-황금사원-다람살라 / 24일 다람살라 네충사원,정부청사, 박물관,링린포체 친견예정 / 25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7일 다람살라-행복한계곡 따시종-캄툴린포체 사리탑 기도-찬디가르 / 28일 찬디가르-델리 / 29일 인천공항 도착

B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남인도 순례 11일(11월 19일 출발 - 29일 도착)
(동참금 30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세계 최고의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불교 최고의 아름다운 불탑인 산치대탑 등 순례

C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성지순례 15일(11월 22일 출발 - 12월 6일 도착)
(동참금 3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 불교 7대 성지순례-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나란다 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



| 현불 논단 |

행복의 수학적 비밀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소욕지족'
현대에서 똑같이 적용은 어려워
불만족 이어지면 자존감 상실돼

만족, '물이 발목까지 찼다' 의미
목까지 욕망 채우면 위험해진다
발목까지만 채워야 몸 가벼워져

신장에서 발목까지 비율 약 4%
4%정도 욕망 충족, 만족의 범위

부처님께서 입멸 전 만족에 대해 설법하셨다.

"수행자여, 욕심이 적으면 근심도 적다. 욕심이 많으면 구하는 것이 많으므로 번뇌도 크다. 고뇌를 벗어나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족을 아는 것은 즐겁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가난하며,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나 마음 부유하다. 이것을 소욕지족(少欲知足)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만족론을 현대사회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 '지금 · 여기' 의 현실은 끝없는 경쟁사회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도심을 배회하는 자본주의의 유령은 귓가에 와서 속삭인다. '인생 성공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남보다 높이 오르는 데 있다', '만족하는 순간에 그대는 정체하거나 뒤쳐진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과 이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속 악마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왜 집이 없지', '나는 왜 연봉이 이렇게 작지' 불만족은 결국 자존감을 흔들고 사회를 향한 울분과 비난을 키운다.

만족이란 말은 정의하기 어렵다.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마음 상태일까. 만족이란 한자 어휘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만족(滿足)은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뜻이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언제든 자기 몸을 꽉 채우고 싶어 한다. 이런 욕망은 위험하다. 홍수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무릎과 허리와 가슴을 지나 목까지 차오르면 금세 입과 코까지 잠기게 된다.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된다.

욕망의 모습도 비슷하다.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한다. 욕망은 늘 '~하고 싶다' 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것의 완성이 행복이라 착각하기 쉽다. 욕망이 절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욕망이 많을수록 몸은 무거워진다. 비유적으로 말해, 날아오를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층위의 우주를 말씀하셨다. 이 삼계(三界)는 욕망,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에 대응하는 공간 이미지다. 해탈이란 이런 심리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란 공간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 겹겹첩첩의 하늘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욕심이 크면 몸이 무거워져서 하늘의 막을 뚫고 올라갈 수 없지 않을까? 발목까지만 채워야 몸이 가볍다. 가벼워야 하늘로 오를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평범한 가정주부에게서 들었다. 그녀는 아내의 지인이었고, 이웃종교인이었고, 평생 다른 사람의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일을 했다. 몸과 관련된 일을 오래해 온 생활인의 지혜였는데 공감이 가는 바가 많았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는 아폴론 조각상은 흥미로운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비율이다. 손바닥은 얼굴 길이와 같고 가슴의 너비는 키의 4분의 1이다. 그중 압권은 황금비율이다. 전체 조각상의 폭과 높이, 몸통과 다리 길이가 1:1.618이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비율이라고 한다. 마지막이 하이라이트다. 발바닥에서 복사뼈까지의 길이가 신장의 24분의 1이다.

만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발목 높이까지만 채우기라면 바라는 것의 24분의 1, 그러니까 약 4%만 이뤄지는 게 아닐까. 심리적 소욕지족은 결국 인체공학적으로 4%의 충족이란 통계가 나온다. 욕심과 고뇌는 정비례한다. 욕심이 많아지면 고뇌도 커진다. 고뇌를 벗어나야 행복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4% 정도의 욕망 충족이면 만족이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다. 행복의 수학적 비밀은 4%에 있는지 모른다.

社 說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마지막 관문인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하고 차기 총무원장에 확정됐다.

진우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에 감사 인사를 전한 직후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전에 삼배로 고불하고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중흥의 새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첫 공식기자회견에서 스님은 소통, 포교, 교구라는 3대 종책기조를 토대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차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향한 불교계 안팎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단일후보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선거 없이 화합으로 이뤄진 사실상 추대 절차였기에, 차기 총무원장을 바라보는 종도들의 기대 역시 그만큼 높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진우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미 종단 여러 소임을 두루 거쳤고 후보 출마 직전까지 교육원장 소임을 맡았기에, 종단 안팎의 현안에 대한 고민도 깊다. 종책자료집에 담긴 다양한 분야의 종책공약 하나 하나가 그 결과물이다.

선출과정에서 이미 종단 안정과 화합이라는 결실을 확인했다. 남은 것은 임기 동안 종책과제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원력이다.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순간부터 최종확정된 순간까지, 매번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불교가 위기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사부대중이 함께한다면 분명 희망은 있다. 불교중흥의 새 장을 열겠다는 첫 일성이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추석 나눔으로 소외계층에 온정을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맞게된 추석이다. 풍성한 한가위로 불리는 추석이지만 사회 곳곳에는 짙은 어둠이 걷히지 않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의식주 문제와 생활고에 시름하는 소외계층이 많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도 그런 이들이다. 9월 1일 쪽방도우미봉사회가 진행한 추석맞이 자비나눔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이들의 애환이 느껴지게 한다. 몸이 아픈 장애인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떡과 과일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 선물을 받아갔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돌봐주는 사람 없어 외롭게 살아가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홀몸노인, 소녀소년가장,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비심을 모아가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자비나눔을 행하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권선도 이뤄져야 한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현재 무료급식소 가건물에 대한 철거 강제이행금이 매년 불어나 3000만원을 넘긴 상태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비행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과 함께 이행금 납부를 위한 후원이 절실하다.

어려운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아끼고 절약한 금전과 물품을 선뜻 내놓는 일이 생활화 될 때에 진정한 불국토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은 더욱 고맙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모아져 더 큰 자비의 공동체를 이뤄가길 바란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⑦ 바흐와 종교편향

공공 단체서 종교음악 공연 안된다

필자의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비틀즈(Beatles)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노래이다. 비틀즈가 '록의 아버지' 라면 바흐는 '클래식의 아버지' 라고 비유할 수 있다.

바흐의 노래를 즐겨듣다 보니 필자는 칸타타, 마테수난곡, 요한수난곡 등 교회음악도 종종 듣는다. 바흐의 교회음악은 '숭고미의 극치' 라고 평가할 수 있다. 1723년부터 1729년까지 바흐는 140곡이 넘는 교회 칸타타와 수난곡들을 작곡했다. 바흐는 신앙심이 깊어서 그의 칸타타와 수난곡들의 악보 서두에는 항시 'Jesu Juva(예수여, 도움을 주소서)' 를 나타내는 문자 J. J.를 적어놓고, 곡의 말미에는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 있으라)' 를 의미하는 S. D. G.를 적어놓았고 한다.

최근 필자가 사는 김천시에서 시립합창단이 종교편향의 물의를 일으켰다.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에서 Wana Baraka(축복), The Prayer(기도)라는 기독교 찬송가를 공연했는데, 공연장에 있었던 한 시민이 후렴구에 할렐루야가 지속되는 찬송가를 듣고서 조계종 사회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다행이 김천불교사암연합회가 항의 방문하자 김천시장 등 관계자들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립예술단의 공연 전에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재발방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합창단 관계자들은 "합창음악은 대부분 서양음악의 곡들인데 서양음악은 교회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고, 애초 음악은 기원(祈願), 염원(念願), 찬송(讚頌) 등 종교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바흐의 음악에 대한 찬사에서 밝혔듯이 교회음악이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 내지는 시립합창단이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공연을 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립 내지는 시립합창단은 공직유관단체이고, 공직유관단체는 종교차별의 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최근 4년간 시립합창단의 공연 목록 193곡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88곡(46%)이 기독교 찬송가였다. 이런 종교편향 사례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광역단체나 지자체가 예술단 운영조례에 종교차별 행위 금지, 곡 선정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채용계약서 상 종교중립 의무이행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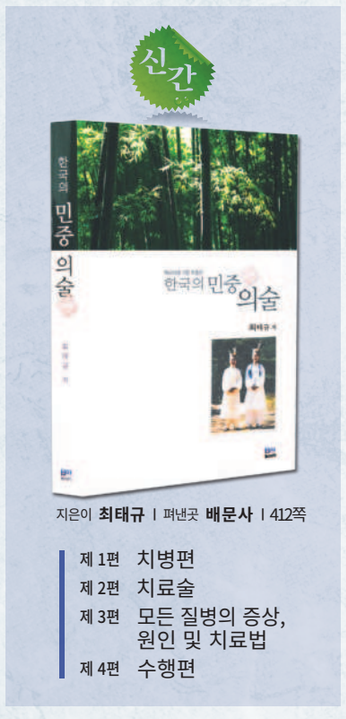
일부 기독교 인사들은 불교문화재와 불교전서에 많은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종교 편향적 사례라고 주장하지만, 불교문화재와 불교전서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불교문화재와 불교전서에 국고가 지원되는 이유는 국가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광역단체와 지자체가 지방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무이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일지라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불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특정 종교음악은 국립 내지는 시립예술단에서 공연되어서는 안 된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 축하 광고 접수 받습니다

귀의 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진우스님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을
봉축 드리며 이에 아래와 같이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제37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 축하 광고
■ 광고크기 : 5단컬러 100만원, 1/2단컬러 50만원
■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기획국 02)2004-8216
■ 담 당 : 표경희부장(010-7733-9343) jabi2018@naver.com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지사지국 접수처 ❖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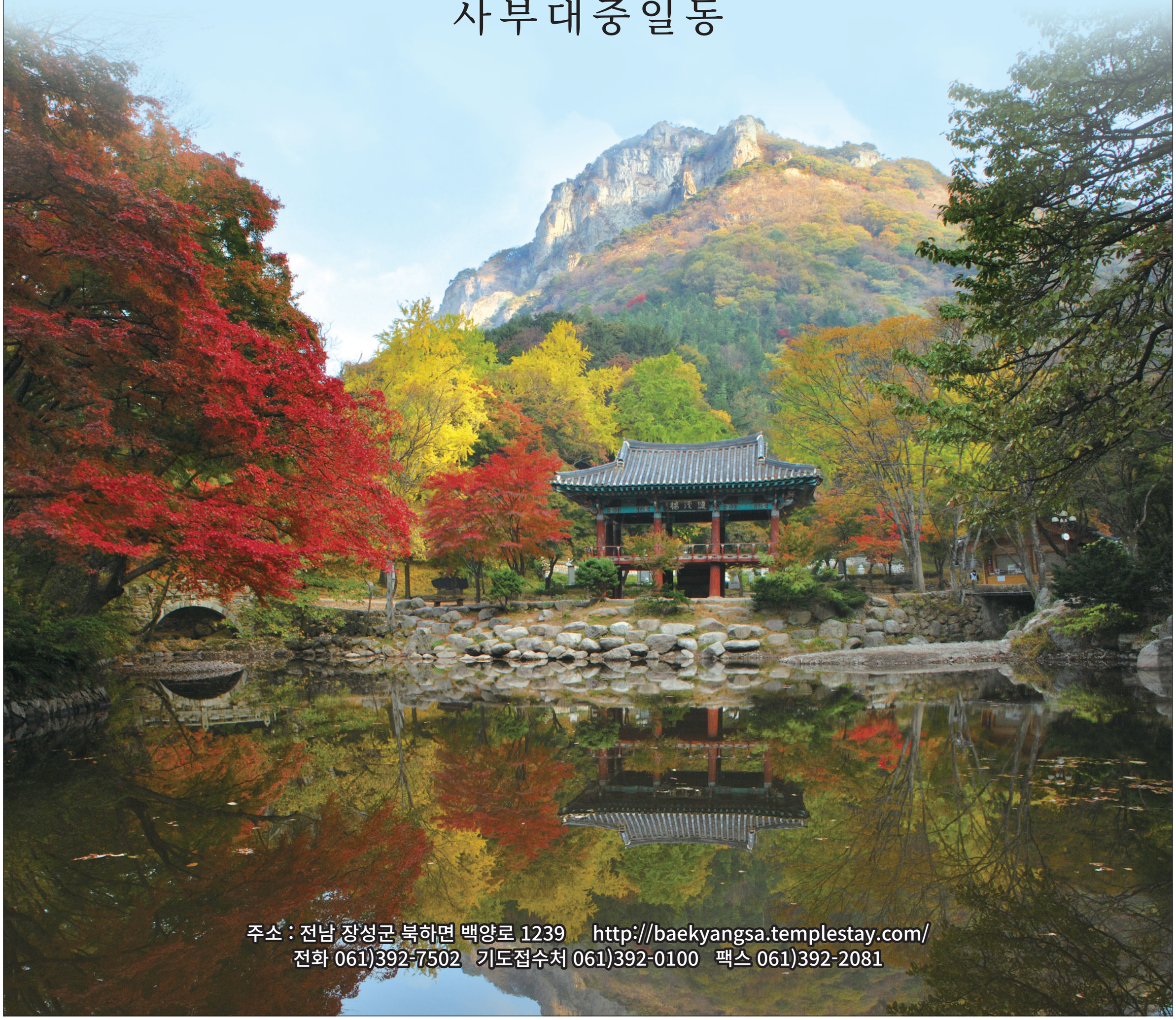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